

Revolution

12월
창간준비
4호

혁명 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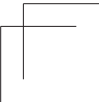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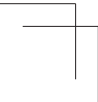
- 당 건설 투쟁의 기초를 밝힌다
- 3자통합 -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
-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한미FTA 반대투쟁과 야권연대
- 월가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혁명 창간준비 4호 Revolution

- 발행일 : 2011년 12월 08일
-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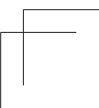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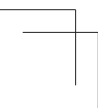


혁명

창간준비
4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4호를 내며 5
- 당 건설 투쟁의 기초를 밝힌다 - 고민택 7
- [출범 축시] 혁명은 온다 - 임성용 시인 16
-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이형로 18
-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2라운드 - 이민수 26
- 3자통합,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 임천용 35
-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 이종범 42
-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남궁 원 49
-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 구재보 55
-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 박현제 60
- [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 김병호 63
- 반혁명인가 계속혁명인가의 갈림길에 선 이집트 - 김병호 71
- [인터뷰] 재능지부투쟁 1500일을 앞둔 유명자 지부장 78
-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85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 회원들이 말한다 - 이지윤, 김남명, 정현철 100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맞아 동지들이 보내온 메시지 105



〈혁명〉 창간준비 4호를 내며

자본주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체제에는 이제 출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아직 땅 속에 매장시키지 못해서 노동자 민중들이 그 위기의 고통을 전가 당하고 있고, 그 때문에 그 죽은 목숨이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좀비 자본주의”라는 유행어가 실감나는 이유이다. 지금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산 시체’다. 이미 사실상 죽었음에도 죽기를 거부하는 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고서만이 살아 있는 척 굴러갈 수 있는 체제! 2008년에 파산한 은행들과 기업들이 ‘구제기금’으로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또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 새 삶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완전한 붕괴를 면한 수준으로 기존 경제가 연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좀비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견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높은 부채 수준이 좀비 가계, 좀비 은행, 좀비 정부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방식이다. 낡은 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 걸려 있는 세계, 아직 오지 않은 혁명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지금 우리의 세계이다.

이 좀비 자본주의에 분노하여 ‘점령하라’ 운동이 펼쳐 일어섰다. 만연한 불평등과 빈곤과 실업, 건축 내뿜이 모두 이 좀비 자본주의가 죽기를 거부하며 99% 노동자 민중들의 살을 파먹는 방식이라는 것을 더 이상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저항에 나선 것이다.

이 땅에서 한미FTA 비준도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여 이 체제를 살려보겠다는 또 하나의 좀비 자본주의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미FTA 반대투쟁에 사람들이 나섰다. 죽기를 거부하는 살아 있는 시체, 이 좀비 자본주의가 더 이상 활발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땅 속에 확실하게 매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도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의 화살이 자본주의 체제가

혁명 창간준비 4호

아니라 단지 MB에게만 쓸리도록 몰아가려는 움직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MB 야권연대 세력들의 ‘선거심판론’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반대는 안 된다. MB만 반대하라’고 말한다.

야권연대/선거심판으로 MB정부 대신 민주대연합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노동자 민중들이 직면한 고통의 근원은 그대로 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출범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서고 있는 MB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 대표자들의 평의회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를 강령 조항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우리는 재벌 대기업과 은행 등 금융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이 1%가 틀어쥐고 있던 부를 가지고 일자리와 주거와 의료 등 99%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좀비 자본주의를 그렇게 땅 속에 파묻어 버릴 것이다.

* * *

《혁명》 이번 호는 많이 늦어졌다. 또한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출범과 함께 정식 창간호를 내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창간준비 4호’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정세지로서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정립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몇 차례 더 창간준비호 형식으로 내고자 한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보다 내실 있는 창간호 발간으로 보답하겠다. **혁명**

2011년 12월 8일



당 건설 투쟁의 기조를 밝힌다

고민택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은 지난 10월 29일 출범 총회와 출범식을 치렀다. 이날 출범 총회에서 ‘강령초안’과 ‘당 건설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확정했다. 강령초안은 이미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 글은 ‘당 건설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말한다.

노혁추는 당 건설 추진체다. 노혁추는 사회주의자의 당면 과제, 일차 목표가 객관적으로 노동자혁명당 건설이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당 건설을 추동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과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혁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5년에 걸친 당 건설 시도와 경험을 거울삼아 당 건설 투쟁을 새롭게 재구성, 재편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운동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노혁추는 한 정파(씨클)로서의 유지나 자기 복제를 통한 조직 확대 위에서 당을 건설하고자 하지 않는다.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은 지난 10월 29일 출범 총회와 출범식을 치렀다. 이날 출범 총회에서 ‘강령초안’과 ‘당 건설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확정했다.

건설! 노동자혁명당

구체적 정세를 핑계로 그것과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노선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혁명주의와 개량주의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은 과정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아니다. 노혁추는 ‘과정으로서의 전술’이 아닌 ‘계획으로서의 전술’에 입각하여 지금, 여기에서 당 활동을 펼쳐 보이는 것을 통해 미래 어딘가에 당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보는 기존 습성을 깨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정세 고양기 또는 혁명적 시기 이전에는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이 의미 없거나, 불필요 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랜(잘못된) 관념을 거부한다.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이 구체적 정세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세를 핑계로 그것과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노선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혁명주의와 개량주의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혁추는 작지만 단지 작기만 한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총괄적, 역사적, 핵심적 경험을 담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혁추는 경험 없는 ‘신생 조직’이 아니며, 과거 활동의 최종 결과로 ‘소정파’로 남아 있는 세력과는 다르다. 우리는 노혁추 같은 조직, 즉 당 건설 추진체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선 조직이다. 노혁추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직이다.

또한 노혁추는 87년 이후 한국 노동자대중투쟁과 일상적, 전국적 차원에서 결합한 운동적 자산(부채 포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선전 조직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거나 현장(노동자)과의 결합력이 미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상만을 보는 단견일 뿐이다. 노혁추는 기존 현장(활동가)과의 친밀 관계에 기대서가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정치 활동을 통해 기존 운동 관계와 습성을 발본적으로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은 전투적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다. 현장활동가들 역시 ‘진보정치’와 ‘조합주의’ 그늘에 갇혀 있다. 그 반면에 계급투쟁의 양상과 조직화 경로가 기존 공식 노조 질서와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맹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조직 상태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의 조직 상태가 어떠한 문제는 지금부터 다가오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혁명적 태세와 준비를 갖추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계급투쟁의 양상과 조직화 경로가 기존 공식 노조 질서와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맹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노혁추는 혁명 조직이다. 물론 아직 선언 수준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자체로 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선언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거나, 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말하는 태도에는 이유가 뭐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더 나아가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혁명 조직임을 표명하는 것과 실제로 혁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혁명 활동이나 등을 대립시키는 것은 표명

여부와 실제 현실(활동)을 분리시키거나 그것들을 전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 것이다.

노혁추는 객관적 정세가 조직들로 하여금 자기의 총체성과 정체성을 발휘 것을 요구,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규정(표명) 여부와 실제 현실 사이에 만리장성은 없으며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스로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데 혁명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혁명 조직임을 표명하지 않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도, 무엇이 혁명 활동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노혁추가 혁명 조직임을 표명한 것을 두고 노혁추가 실제로 혁명 조직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나 노혁추가 말대로 혁명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 정세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든 혁명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노혁추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치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런

건설! 노동자혁명당

당 건설 투쟁은 곧 개량주의, 노조 관료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혁명적 지도력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야말로 만리장성이 가로 놓여 있다.

개량주의, 노조 관료 지도부에 대한 정치투쟁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차적, 직접적 세력은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다. 역으로 말하면 공식 노조(조직노동자)는 물론이고 그나마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도 대부분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의 지도력에 갇혀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지배세력에 맞선 투쟁을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가 최일선에서 주도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당 건설 투쟁은 곧 개량주의, 노조 관료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혁명적 지도력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지금 한국의 계급투쟁 정세와 정치지형도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87년 정세와 같은, 그러나 그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세의 역동성과 휘발성이 자라고 있다. 민주화는 더 이상 대중의 직접적 요구도 주요한 관심사도 아니다. 민주가 대중이 처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은 맞지만, 자본의 독재가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본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그 자체를 해소하지 않고는 민주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노동자계급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은 진보대통합 심지어 민주대연합과 같은 퇴행이 노동자계급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진보정당의 주요 지도부와 노조 관료층은 자본가정당과의 단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아예 한 몸이 돼가고 있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이 꼭 낮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록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당장 혁명에 펼쳐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하다는 현실이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그들 지도부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갖게 하는 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즉 노동자계급이 보이고 있는 그들 지도부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일시적이며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보면서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의 태도를 오히려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촛불투쟁,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 투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통적인 노동자투쟁인 지난 ‘쌍차투쟁’이나 ‘현대차비정규직투쟁’ 그리고 ‘재능투쟁’과 같은 장기 투쟁사업장에서 진보정당이나 노조 관료 지도부는 한 번도 대중을 앞서나간 적이 없다. 그렇긴커녕 오히려 반MB를 앞세워 야권연대의 틀에 가두는 데 골몰했을 뿐이다. 현실은 그들 지도부가 노동자계급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볼모로 삼아 노동자투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이 보여 주고 있다.

실제 현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다. 촛불 투쟁,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투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통적인 노동자투쟁인 지난 ‘쌍차투쟁’이나 ‘현대차비정규직투쟁’ 그리고 ‘재능투쟁’과 같은 장기 투쟁사업장에서 진보정당이나 노조 관료 지도부는 한 번도 대중을 앞서나간 적이 없다. 그렇긴커녕 오히려 반MB를 앞세워 야권연대의 틀에 가두는 데 골몰했을 뿐이다. 현실은 그들 지도부가 노동자계급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볼모로 삼아 노동

자투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이 보여 주고 있다.

한미FTA 투쟁에서도 이 점은 또 다시 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한미FTA를 반대, 폐지하기 위한 투쟁조차 ‘국익론’이나 ‘애국주의’로 끌고 가면서 야권연대, 선거심판에 가두는 한편 한미FTA 반대, 폐지 투쟁 동력을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또 다른 요구들로 확장, 강화시키려는 대신 단일 투쟁으로만 부각(제한)시키고 있다. 그와 함께 실제로 한미FTA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의존하는 단순 집회나 가두 투쟁만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시늉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진보정당 또한 기존 제도 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대중의 인식과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은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한계가 대중들에게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대체가 급진적, 혁명적 방향이 아니라 현

건설! 노동자혁명

진보대통합을 강조할수록 민주대연합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수권정당(론)을 버리지 않는 한 진보대통합은 결코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전면화와 혁명 지도력의 등장만이 그 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또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혁명 세력이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펼쳐야 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동시에 이른바 ‘좌파세력’ 일부에서조차 민주대연합은 반대한다면서도 진보대통합은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논리와 현실 인식은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과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물론 그것들 사이에 일부 수순적, 전술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을 강조할수록 민주대연합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수권정당(론)을 버리지 않는 한 진보대통합은 결코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전면화와 혁명 지도력의 등장만이 그 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이제 그들 모두를 향해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정치폭로와 함께 혁명 세력 스스로 대안적 지도력으로 나서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개량주의 세력의 주요 지도부와 이들과 짝을 이루는 노조 관료 지도부는 더 이상 설득이나 재편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노동자계급과 맺고 있는 동맹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중 투쟁(행동)과 강령과의 결합

‘촛불투쟁’,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투쟁’, ‘점거 운동’에서 보듯이 계급투쟁의 양상과 경로가 새롭게 등장,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 전 쌍용자동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투쟁도 전통적인 민주노조운동과는 그 맥락이 다르게 일어난 것이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기운이 공식 노조 질서와 체계 바깥에서, 즉 광의의 노동자계급 또는 프롤레타리아 층으로부터 직접 올

라고고 있다.

국 강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양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빠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운동양식만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앞서 가지는 커녕 대중이 분출하는 역동성과 에너지에 따라가기에도 베풀 수 없다. 노동조합 운동의 배후 세력에서부터 벌어진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지나 지원을 하는 속에서의 조직화만을 시도하거나, 또는 노동 쟁점과 현장 자체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는 정치활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여전히 노동 쟁점, 현장 자체는 중요하다. 그것들을 배제하거나 등한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정치화나 조직화를 시도하더라도 투쟁 그 자체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정치화나 조직화를 지속하기도 상승시키기도 어렵다. 투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제 계급세력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투쟁의 정치적 지향과 그 지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을 놓고 투쟁 주체와 매 순간 소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수미일관하게 이끌 수 있는 총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 총체성이란 결

투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제 계급세력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투쟁의 정치적 지향과 그 지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을 놓고 투쟁 주체와 매 순간 소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수미일관하게 이끌 수 있는 총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 총체성이란 결국 강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자투쟁이 급진화, 혁명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강령이 부재해서만은 아니다. 그러나 강령이 부재한 것이 다른 무엇들이 부족한 것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물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강령 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도와 정치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속에서의 투쟁이란 아무리 투쟁이 거대하게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투쟁이 계속되어도 결국 제도와 체제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선거심판론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도 강령이 부재한 관계로 지금껏 그들과 정치적(총체적)으로 대당하지 못했다. 진보정당과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벌이지 못한 숨겨진(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강령이 뭐가 필요(중요)하냐’거나 ‘강령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물론 강령 자체의 올바

건설! 노동자혁명이다

‘강령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강령이 있음에도 생기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강령 없는 조직활동, 정치활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새로운 문제, 즉 지금보다 진전된 상황에 비로소 직면하게 된다.

름 여부 문제가 있으며, 강령을 실제 투쟁의 지침과 무기가 되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 강령이 달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단결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그러나 ‘강령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강령이 있음에도 생기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강령 없는 조직활동, 정치활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새로운 문제, 즉 지금보다 진전된 상황에 비로소 직면하게 된다. 당 건설 투쟁은 다름 아닌 강령 건설 투쟁이 되어야 한다.

강령 건설 투쟁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대중화다. 대중화란 노동자계급에게 단지 강령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 대중 자신이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출발은 벌어진 대중투쟁을 강령과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겠지만 나중에는 대중 자신이 강령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고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내부화다. 내부화란 강령, 전술, 조직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강령, 전술, 조직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다. 그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강령, 전술, 조직이 서로 분리된 채 제 각각 기능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것들이 상호 유기적 통일체가 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셋째는 현재화다. 현재화란 강령을 오늘의 정세에 부응하도록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혁명 이론에 대한 탐구와 논의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강령은 죽은 화석이 아니다. 강령은 시공을 떠나 적용해야 할 교조도 아니다. 강령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

2012년 정세전망과 당 건설 투쟁

2012년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격동적인 정세가 펼쳐질 것이 총

분히 예상된다. 2008년 10월 발발한 세계 금융 위기가 초입 단계를 지나 이미 본격적인 세계공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12년은 더욱 그 양상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자본의 위기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빠르게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진화, 진전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황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총선과 대선까지 겹쳐 있어 정치적 격변마저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호는 '민주연합/공동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정부를 전면에 걸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억눌렸던 모든 요구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10년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 더 나아가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을 말하는 온갖 개량주의 세력과 노조 관료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정부를 걸어야만 수미일관하게 그런 투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든가, '한미FTA 찬성/반대'라든가, '이명

노동자정부를 걸어야만 수미일관하게 그런 투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든가, '한미FTA 찬성/반대'라든가, '이명박 심판/선거 심판'라든가 등도 노동자정부를 앞세운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로 갈아치워야 한다. 2012년 전체 정치(계급)정세를 '자본가정부냐, 노동자정부냐'의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

박 심판/선거 심판'라든가 등도 노동자정부를 앞세운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로 갈아치워야 한다. 2012년 전체 정치(계급)정세를 '자본가정부냐, 노동자정부냐'의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정부를 말하지 않는다. 아니 말할 수 없다. 노동자정부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요구는 진보정당(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노동자정부는 오직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 투쟁과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그 현실성과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투쟁으로만 되살릴 수 있다.

99%는 '야권연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 99%가 '선거심판'에 의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중 자신의 직접 투쟁, 직접 행동만이 99%를 현실화할 수 있다. 99%는 다름 아닌 반자본주의다. 2012년을 반자본주의 투쟁의 원년으로 만들자! **역명**

혁명은 온다

임성용

혁명이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인가
혁명이 정말
사랑보다 깊은 것인가
오지 않는 혁명을 말하면서도
언젠가 오고야말 혁명은 믿지 못하는 그대여
혁명이 너무 무겁다고 머리 돌리는 그대여

혁명은 온다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어도
어제 불던 바람이 오늘 다시 몰아치듯
산 넘어간 노을이 바다 건너 더욱 붉게 타오르듯
사라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오고야말 혁명을
우리가 앞서 숙명적으로 맞으러 가면 된다
중구난방 기다리고 앉아 있기 전에
우리가 한 발 먼저 혁명 앞으로 다가서면 된다
이런 당연한 마중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찌 혁명이 온단 말인가

실연뿐인 상처를 앓고 있는 그대여
좀 더 불온하게, 좀 더 처절하게
이별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라
혁명보다 깊은 사랑을 간통하라
한 번 뿐인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멀쪼한 팔다리에 남아있는 힘이 있다
마지막 살아 있는 목숨이 있다

혁명이란 별 것 아니다
혁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낡은 나사못처럼 버려진 혁명, 너를 안고
이미 내려친 망치질을 멈출 수 없다



임성용 시인 약력

1965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으며 구로, 안산공단에
서 공장노동자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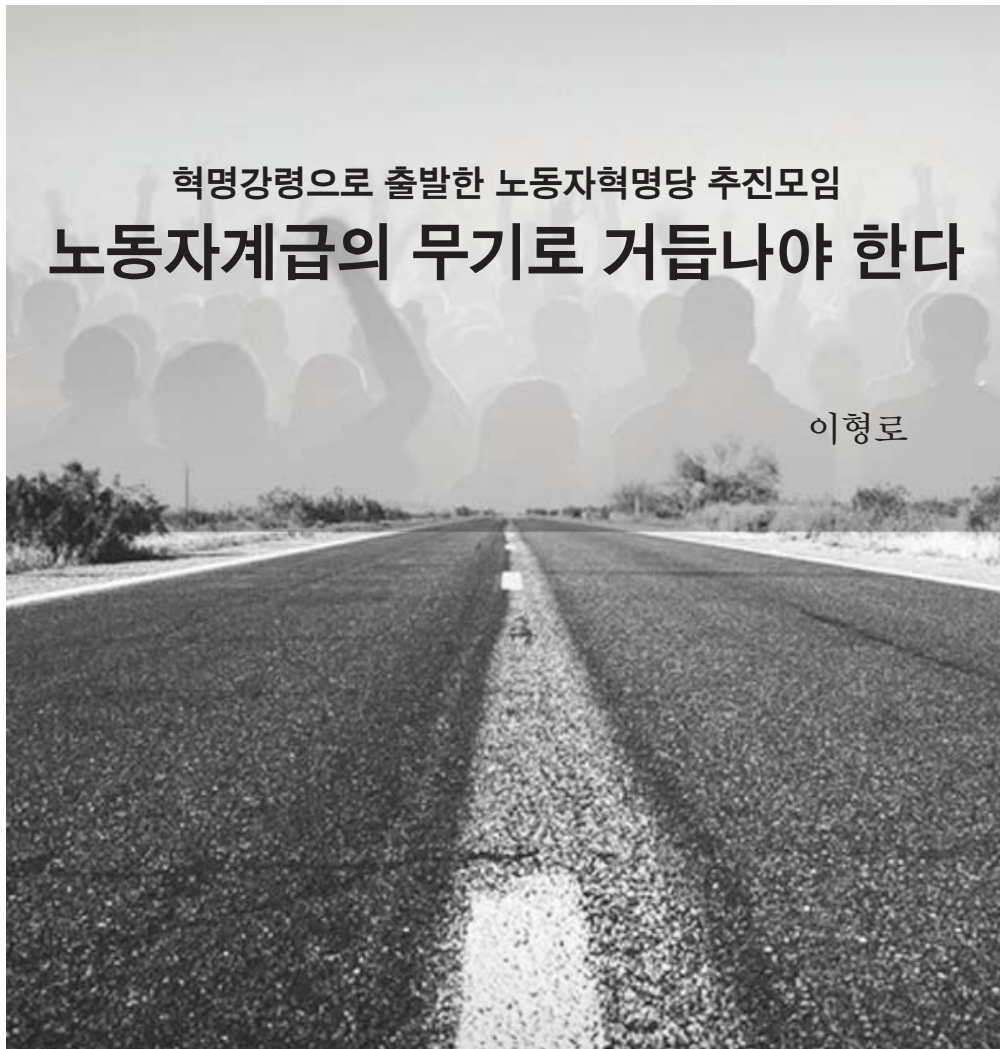
1992년부터 노동자문예 <삶글>에 시와 소설을 발표
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2년 제 11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하늘공장』이 있다.

최근엔 제1회 '노동자시인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수
혜자로 선정되었다.

“[편집자] 임성용 시인이 노동자혁명당(추) 출범을 축하하며 출범식에서 직접 낭송해 주신 축시를 <<혁
명>>지에 실기 위해 다시 축약한 형태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0월29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이 공식출범했다. 작지만 뜨거웠던 이날의 출범식이 역사적이었던 까닭은 자본주의의 끝 모를 위기 속에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혁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산주의 강령과 노동자혁명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담아 공개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일이며, 자본주의 체제를 일소하는 공산주의 노동자혁명을 통해서만 노동해방이 가능하다’는 공산주의 강령을 채택하며 출발한 노혁추는 앞으로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혁명 강령과 혁명당이라는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혁명 강령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막다른 길목에서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자본주의 근본모순은 공산주의혁명 이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은 한 억압받는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물결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들이 자연적으로 혁명적인 투쟁과 노동자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바로 노동자 투쟁을 혁명의 길로 일관되게 이끌어갈 실천의 지침인 혁명 강령이 노동자계급 속으로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비로소 혁명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혁명 강령이란 노동자계급 투쟁의 궁극적 목표인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적으로 밝혀줄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이자,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을 자본주의 물질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것이다. 또한 강령은 노동자 계급이 실현해야 할 공산주의라는 목표로부터 규정 받고, 이러한 목표의 일부를 이루는 전략전술들을 동시에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전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오는 실제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해야 하고, 강고한 계급투쟁의 현실로부터 그 풍부함을 이끌어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행동의 지침이자, 노동자계급 전체의 실천의 결실인 것이다. 따라서 혁명 강령은 신비스런 기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은 규칙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산물이며 투쟁의 무기다.

건설! 노동자혁명당

노동자 투쟁을 혁명의 길로 일관되게 이끌어갈 실천의 지침인 혁명 강령이 노동자계급 속으로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비로소 혁명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혁명 강령을 방어하는 혁명당의 역할

그런데,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이 일상적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계급의식은 혁명적 의식으로 진전될 수도 있지만,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게는 계급의 모든 역사적·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당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명 강령 없는 혁명조직(당)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때 당은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조직적으로 함께 해야만 혁명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자 계급투쟁에 복무해야 한다.

혁명당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바꾸고 혁명으로 이끄는 일은 당이 제공하는 신비하고 마법 같은 묘책이나 환상에 있지 않다. 단지 혁명당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이 명백하고 보편적인 용어로 노동자들의 실제 필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의 <<러시아혁명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라.

“선원 코린은 그의 회고록에서, 스스로를 사회혁명당 당원들로 생각하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볼셰비키의 강령을 방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어떻게 이러한 허약한 조직과 미미하게 배포된 당 출판물로, 볼셰비키의 생각과 슬로건이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는가?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 : 계급과 시대의 예리한 요구에 상응하는 이러한 슬로건들은 그들 자신을 향한 수천의 채널들을 만들어낸다.”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존재하는 요구와 필요를 명백하고 간단하게 표현했고, 투쟁의 경험들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열망들을 감안하여 전체 운동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계급의 혁명적 경향들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불게 달아오른 혁명적 매체는 사상의 뛰어난 전도체이다. 볼셰비키 신문들은 큰 소리로 읽혔고, 세세한 부분까지 읽혔다. 가장 중요한 기사는 외어졌고, 인용되고, 다시 복사 되었으며, 가능한 곳에선 어디든 다시 인쇄되었다. 볼셰비즘의 성공에 대한 일상의 설명은 대중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슬로건의 단순함’이란 표현으로 요약 설명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들의 투쟁에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에 의해 인도되었다. 볼셰비즘은 대중의 독립적 경험에 대한 귀족주의적 냉소에 절대 오염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것이 그들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뛰어난 지점 중 하나였다.” 트로츠키, <<러시아혁명사>> 2권.

러시아 혁명의 사례에서와 같이, 볼셰비키

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존재하는 요구와 필요를 명백하고 간단하게 표현했고, 투쟁의 경험들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열망들을 감안하여 전체 운동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계급의 혁명적 경향들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계급의식을 바꾸고 혁명으로 향하게 하는 일, 이것은 신비스럽거나 불가사의한 이상이 아니다. 현재의 조직 상황이 허약하고 작더라도 명확한 정치적 지향이 있다면 즉시 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혁명적 이론과 노선을 실천의 무기로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혁명조직에게 있는 것이다.

혁명당 건설과 혁명 강령 채택의 의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무기인 혁명당을 건설하기 위해, 아직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강고한 계급투쟁의 현실로부터 풍부함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이론적 성과들을 담아 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실천적 결의로 채택하면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혁명당과 혁명 강령 건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어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혁명당은 반드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공산주의 강령을 방어하면서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당분간 노동자계급 내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당이 방어하는 공산주의 강령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건설!
노동자혁명당

혁명당이 방어하는 공산주의 강령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려는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자신의 과업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려는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노동자혁명당 추진 모임은 단절되고 짧은 한국의 혁명적 사

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비록 혁명적 계급운동의 대대적인 출현 속에서 혁명당 건설을 전면화 시키면서 출발하지는 못했지만, 혁명당 건설을 위한 험난하면서도 거침없었던 고난과 각성의 과정을 겪으면서 혁명 강령 건설과 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기에, 강령채택을 기반으로 혁명당 건설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 건설운동에서 질적인 전환이었다. 한국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혁명세력들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즉각적인 혁명당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자 당 건설 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인식했었기에, 각각의 정파와 씨름 속에 갇혀 있던 정치적 지향들을 강령적 수준으로 통일시키면서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이후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 사

한국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혁명세력들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즉각적인 혁명당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자 당 건설 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인식했었기에, 각각의 정파와 씨름 속에 갇혀 있던 정치적 지향들을 강령적 수준으로 통일시키면서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련, 사노위, 그리고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으로 이어지는 혁명당 건설을 위한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의 일부이자, 구체적 발현태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 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때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객관적 정세가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 혁명당 건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했다.

노동자혁명당 강령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동자혁명당의 강령이 방어해야 할 혁명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이 원칙들은 노혁추가 채택한 강령 초안의 내용을 대부분 규정해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체제인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 모순을 밝혀내고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계급투쟁의 동학,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자본주의

가 더 이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체제이기를 멈추고 이제 생산력 발전에 족쇄가 되는 시대, 즉 자본주의 쇠퇴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공산주의가 현실의 일정에 오르기 시작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끝 모를 위기의 본질과 자본주의 쇠퇴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생존권 위협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등)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의식과 조직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 새롭게 창출되는 운동과 계급투쟁의 부활 속에서 다시 한 번 혁명적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급의식을 자각케 하는 일이다.

둘째,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권력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장악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먼저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자본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무장력과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무장력에 의존하며, 노동자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혁명정당을 건설해야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셋째,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라고 불리어 온 스탈린주의 체제들을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건설! 노동자혁명당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권력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 억압 체제, 노동자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단호히 지지하고, 그리고 혁명 패배의 교훈과 이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건을 찾아 내고자 하는 후세대 혁명가들의 의무이자 과제인 것이다.

넷째,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세계혁명은 세계혁명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계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혁명적 공산주의 진영을 다시 규합하고 강령을 통일하여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세계혁명과 노동자국제주의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강령에 담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혁명당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세계혁명당 건설에 복무해야 하며, 세계적인 강령통일을 과제로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칙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를 실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혁명적으로 타도할 때만이 폐절시킬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12 항목의 이행요구는 바로 쇠퇴하는 반동적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계급이 현실에서 투쟁으로 즉각 쟁취해야 하는 요구들이자, 이 요구들을 전진시켜 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철폐로 이어지게 하는 행동 강령이다.

세계혁명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계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혁명적 공산주의 진영을 다시 규합하고 강령을 통일하여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세계혁명과 노동자국제주의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강령에 담는 것이다.

결론

일찍이 마르크스는 임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른바 비인간적인, 자유가 없는, 소외된 노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 “삶에 대한 선언으로서의, 따라서 삶의 향유로서의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살아남아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가치를 계승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공산주의 강령을 전면으로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썩어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고자 나섰다.

노혁추 출범식에 축시를 낭송한 노동자시

인의 시 구절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혁명이고, 용서할 수 없는 착취계급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다. 오랜 침체기를 지나오면서 고통과 절망이 지배했던 노동자계급의 현실 속에서 혁명의 가능성은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부활하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계급투쟁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이고, 노동자계급의 행동 중에 가장 의식적이고 총제적인 행동이므로 단순한 분노와 직접행동만으로는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분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좌절은 혁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듯 노동자계급이 역사와 혁명의 주체로서 새로운 사회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혁명의 현실성을 담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 강령이다. 혁명의 성공은 노동자혁명당의 강령과 그것을 행동에 옮길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계급의식에 달려있다.

쇠락해가는 자본주의, 야만이나 혁명이냐의 시대,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혁명당 건설에 즉각 착수하자!

노동자계급에겐 무기가 되고 자본가계급에겐 실질적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 혁명 강령을 건설하자! **혁명**

건설! 노동자혁명당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이고, 노동자계급의 행동 중에 가장 의식적이고 총제적인 행동이므로 단순한 분노와 직접행동만으로는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분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좌절은 혁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2라운드

이민수



유로존 국가들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재정위기로 침몰하고 있는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17개국)에서 지난 11월, “시장의 신뢰를 잃은” 두 명의 총리가 며칠 사이에 잇달아 퇴진해야 했다. 언론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자

본기들이다.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국제 금융자본기들의 협의체인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신임을 끝내 잃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두 총리는 각각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자 민중들의 항거에 의해 퇴진한 게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들 국제 금융과두체의 지시로 물러나야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부르주아들 간의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과

연 이렇게 노골적인 금융과두정으로 자신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은행가들의 쿠데타”

“시장”, 즉 채권보유자들(예를 들어 억만장자 워렌 버핏과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핼코 같은)의 요구 하에 이들 선출된 두 정치인 총리 자리는 두 명의 “테크노크라트”(은행가인 루카스 파파데모스와 금융전문가인 마리오 몬티)가 각각 계승했다. 둘 다 선거는 없었고 국회에서 최소한의 요식행위만 거쳐서 취임했다. 그리고 여기에 EU와 유럽중앙은행을 대신하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인준해 줌으로써 미국 금융자본을 비롯한 “시장”을 안심시켰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명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민주주의 규정이 언제 개정되었던가. “국민” 대신 “금융자본”으로?

앞서 IMF와 유럽중앙은행과 사르코지 · 메르켈은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잔인한 긴축안을 받아 적게 했다. 한국에서 1998년에 IMF가 김대중 정권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파판드레우는 이 긴축안을 갑자기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하는 만용을 부렸다. “시장”으로부터 “너 죽을래?” 한 마디에 꼬랑지를 내려야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회의에 소환되어 정식으로 경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그리스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지시하고 있다

고를 받았다. “국민투표 공식적으로 철회 안 하면 ‘구제기금’은 더 이상 없다.”

아테네로 돌아온 파판드레우는 굴욕적으로 국민투표 철회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후 10년 간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할 그 무시무시한 긴축안을 실시하겠다고 다시 천명했다. 국민투표 철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 ‘상부’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파판드레우 자신도 퇴진해야만 했다.

칸 G20 회의에서 야단맞은 또 하나의 직무태만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두통거리었던 그의 어릿광대짓을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이다. 경제 규모로 그리스의 7배나 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채권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위기는 현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이탈리아 정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위험담보금’을 올려야 한다며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채 수익률(즉 국채 금리)이 몇 주 간 계속 올랐다. 베를루스코니는 그 동안 인기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큰 폭의 재정 삭감은 피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정부 차입금을 계속 늘려 올 수밖에 없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1조 9천억 유로(약 2,882조 원)로 GDP의 120.5%이다.

그래서 칸에서 베를루스코니도 파판드레우처럼 외교적 예우도 생략당한 채, 집에 가서 빨리 건축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못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도 아마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가 자리를 차지할 상황이었다.

베를루스코니는 건축 프로그램을 강행할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11월 9일 유럽 최대의 국채거래 청산회사인 LCH클리어넷이 이탈리아 국채 거래 증거금(위험담보금) 인상을 요구하자 이것이 발단이 되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투매 패닉이 일어났다. 같은 날인 11월 9일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어 섰다. “시장”이 볼 때 이

수준이라면 이미 되돌아 올 수 없는 지점, 즉 차입 비용이 추가 차입을 불가능케 하는 지점에 이른 것이다. 세계의 정치가들과 경제전문가들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어릿광대”는 물러나야 하고, EU 경쟁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그룹의 고문인 마리오 몬티가 베를루스코니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합장을 했다.

채권 시장 패닉에 동반하여 전 세계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의회 내 베를루스코니 지지자들과 연정 파트너들도 그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탈리아 대통령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 그는 구 이탈리아공산당의 지도자였다 -- 는 몬티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종신 상원의원으로 의무 지명했다.

11월 10일 이탈리아 상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보장 감축안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더해 기존 노동보호법을 뒤엎고 개악하는 법안들을 156 대 12로 통과시켰다. 다음날 하원은 이 모든 것을 380 대 26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민주당(구 이탈리아공산당이 ‘좌익민주당’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은 그들에게 표를 던졌던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시, 가장 수치스런 방식으로 배반했다. 은행가들의 사람인 몬티에게 “베를루스코니 제거”라는 명분으로 잠깐이라

도 신임을 보내는 것은 수치스런 불명에 수준을 넘어 정치적 범죄이다.

이탈리아 노동자들과 실업·반실업 청년들과 남부 농촌의 빈민들은 이제 자신들 말고는 믿을 놈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노동조합의 기층 평조합원들 속에서, 작업장과 학교에서, 노동자계급 지구들에서 대중적 저항운동이 이미 자라나고 있다. 그리스에서 사회적 삶을 파탄내고 있는 긴축 내핍이 이탈리아에서 똑같이 실시되도록 놓아두지 않으려면 고립적인 ‘하루 행동의 날’이나 상징적인 점거행동을 넘어서 총파업으로, 그것도 무기한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2차 신용사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위기, 그리고 EU가 조직한 이번 “은행가들의 쿠데타”를 통해 유럽 공동 통화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날로 커져가고 있던 모순이 드러났다. 4년 간 불황과 정체와 최근의 성장 하락이 이어진 뒤에 이 모순이 그리스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탈리아에서 터져 나왔다. 디폴트(채무불이행/국가부도)로 “제2차 신용사태”가 터질 기세다. 미국에서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에 뒤이은 신용경색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은행 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점치면서 경

제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완곡한 표현이 바로 이 “제2차 신용사태”다.

“우리 돈”으로 구제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게으르고 낭비가 심한”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와 브뤼셀과 파리와 런던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가들”이다. 실제로 이들 금융자본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의 가치를 최종 50% 상각(부채 50% 탕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 구제금융은 대부분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리스 국내의 몇몇 인수합병 독점자본한테 간다. 유럽 중앙은행과 IMF 등이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재무부에 빌려주는 신규 대출은 곧장 이들 기생충들한테 그 동안 밀린 국채이자를 갚느라고 다 빠져나간다.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빈약한 연금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인들한테는, 한 국에서 1998년 IMF 때 그랬던 것처럼 단 한 푼도 가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연준(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하듯이 유럽중앙은행이 그 자신의 채권(말하자면 유럽연합 공동국채; 유로본드)을 발행하거나 대대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로 인해 유로존이 해체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일부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독일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월 15일 이탈리아 아쿠파이 시위

이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923년 살인적인 초인플레이를 겪고 그 결과 히틀러 집권이라는 재앙을 맞게 됐던 독일 국민들의 정신적 강박 때문이 아니다. 전체 유로존 수준에서 양적완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로화를 남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에 대비해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맞춰놓아야 이 나라들의 경제가 북부의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을 위한 확실한 돈줄이 계속해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환율을 조정할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등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급증을 막아낼 길이 없다. 남유럽 국가들의 조세수입으로는 이 같은 과평가된 통화를 떠

받칠 수가 없어서 파멸적으로 높은 금리로(프랑크푸르트은행과 파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만 했었던 한편, 그와 동시에 이들 국가의 경쟁력 없는 산업들은 홍수처럼 밀려드는 독일 수입품에 밀려 무너져 내렸다.

예를 들어, 그리스 국내산 제품 가격은 1995년에서 2008년 사이에 평균 67% 올랐는데 이는 유로존 차원에서 볼 때 기록적인 상승이다. 스페인 국내산 제품의 평균 가격은 56%, 포르투갈은 47%, 이탈리아는 41%나 각각 올랐다. 대조적으로 독일은 같은 시기에 단지 9% 올랐을 뿐이다. 독일 자본한테는 추가 보너스가 될 것 하나가 또 있는데, 유로화

도입 이래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것! 태세를 보였다.

이탈리아인들도 베를루스코니 10년으로 피폐해졌다. 7명 중 1명꼴로 빈곤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편, 경제위기로 고실업 저임금이 만연했다. 이미 10월 15일 국제 아쿠아이 날로 마에서 경찰과 한바탕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베를루스코니가 실각했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춤추던 것도 시간이 지나 끝나고, 이제 마리오 몬티 새 총리가 착수하는 건축 공격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리스와 같은 규모로 광범한 저항과 대중파업 물결이 번져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프랑스는 어디로?

이제 투기꾼들은 호시탐탐 이탈리아 어깨 너머 프랑스를 엿보고 있다. 프랑스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의식해서 전면적인 긴축 조치는 피한 채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를 뒤섞은 베를루스코니 식의 ‘짬뽕 정치’를 수년간 추구해 왔다. 이제 프랑스는 그리스·이탈리아와 같은 뒷에 걸려 성장률 하락과 부채 증가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를 “관찰 대상”에 올려놓고 여차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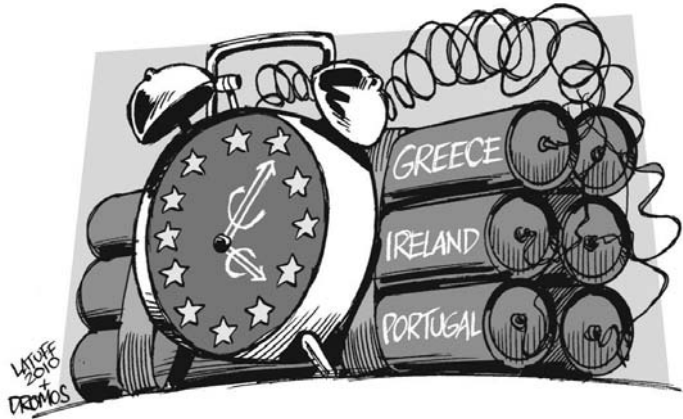
11월 11일 금요일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이미 강등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실수”라며 급히 철회했지만, 시장이 처음부터 성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었다. 성명은 아무도 쌍뚱맞다고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성명으로 패닉과 시장 급락이 촉발됐다. 금융자본기들은 프랑스 부채가 이미 기존 트리플-A 지위를 잃은 것으로 간주했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만일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동일한 압력 아래 놓이게 되면 이는 단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문제가 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독-불 동맹은 유로존이 굴러가는 중심축이다. 프랑스가 부채 위기에 빠지면 유로존 전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 세계 경제를 건잡을 수 없는 침몰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유럽재정안정기금 -- 국채 매입 등을 통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긴축 프로그램에 버팀목을 대주고 있는 유로존 구제기금 -- 의 신용등급도 동반 추락할 것이다.

전염

유럽 전역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전염”이라는 단어가 금융기관과 경제전문가들 누구의 입에서나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서로 서로 물려 있는 상호 부채가 어느 일국(또는 어느 주요 은행)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신호탄으로 체제 전반의 패닉으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과 은행 줄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 병든 중위권 유로존 나라들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의 정부 부채 중 외국인 보유분은 그 대부분이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 것이다. 미국 은행들은 이들 나라 부채 가운데 6%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파생금융상품 같은 다른 형태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8%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미국 은행 대출에서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여된 것이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간접적으로 미국 은행들이 이들 중위권 나라들의 정부 부채 중 훨씬 더 많은 액수 -- 미국 은행들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액수 -- 가 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칸 G20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유럽 정상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한테 “당신네들의 우유부단함이 세계경제 전체[미국 은행들]이라고 읽자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대놓고 문책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 폭발적인 것은, 미국의 10대 머니마켓펀드(MMF)들이 유럽 은행권에 대한 단기 대출을 2850억 달러로까지 늘린 것인데 이는 그들 자산 총액의 42%에 달하는 액수이다.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번질 때마다 매번 ‘위험담보금’은 더 높아지고, 시장의 공포가 증대되고 부채 비용도 증대되고, 그와 함께 은행권 붕괴를 가져오는 국가부채 위기의 위험도 증대된다. 2008년 가을에 미국 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붕괴하여 금융 위기와 세계 공황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번에는 전염병이 역방향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번져갈 수 있다. 유럽은 비틀거리며 그 같은 붕괴 직전 상황까지 왔다.

“신흥시장”에 대한 유럽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총 3조 6천억 달러(신흥시장 은행들의 차입 총액의 71%)이다. 여기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오늘날 세계경제의 주 성장 원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유럽 은행권의 위기는 제2차 공황(이른바 “더블딥 불황”)을 알리는 전령이다. 그 공황은 2008년-2009년 공황보다 더 격렬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공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위한 가용 기금이 없기 때문이다.

부채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무디스와 LCH클리어넷 같은, 외견상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외관을 취하고 있는 금융 시장 인프라가 그 동안 보여준 것은, 이들이 시장의 변수들을 조작해서 멸절한 나라들까지도 경제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보듯 정부를 퇴진시키고 긴축 프로그램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노동기본권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의 범위와 강도를 보면 전에 반(半)식민지 같은, 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나 보았던 역사적인 규모의 공격이다.

언론은 이러한 공격과 압력의 출처를 “채권 시장”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수면 아래에는 워렌 버핏과 피코 같은 억만장자 거대 작전세력이 있다. 이들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 준 정부들은 전면적인 긴축 프로그램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대출상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긴축 프로그램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임금·연금 및 복지 삭감과 노동기본권 축소 등 자본에 이익이 되게 나라 경제를 완전히 재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로 0.1%가 99%를 겨냥하여 펼치는 ‘작전’이다.

이러한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겨우 그 초입부를 통과한 역사적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본주의가 20세기 후반부에 유럽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물을 회수하기 위해 지금 사생결단으로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 걸쳐 쌓아 올린 것을 단 몇 달만에, 길어야 몇 년만에 파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러듯이 케인스주의적 공황 타개 정책에 희망을 걸고 저항과 반대투쟁을 미루고 늦추는 것은 계급에 대한 범죄이다.

자본의 이러한 역사적 공격에 맞선 효과적인 저항은 전면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이다.

트로츠키가 말한 것처럼 총파업은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의 문제, 즉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자본주의 자체가 객관적으로 준혁명적 ·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의 노동자들이 곧 최전선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돌발적으로 정세를 급변시키고 있다.

나라 별로 저항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이 노동자들의 주의를 진좌적(자본주의)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직접 공격받고 있는 나라 노동자들과의 국제주의적 연대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유럽에서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이러한 임무와 과제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공산당 등이 내걸고 있는 “좌측으로 유로 이탈[좌익적 EU 탈퇴]”이라는 쇄국주의 슬로건은 대중들을 지배계급의 민족주의 · 애국주의에 결박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한국이든 유럽이든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디서나 이러한 민족주의 · 애국주의 물결이다.

중동이나 동아시아나 어디서든 그렇지만, 특히 지금 유럽의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전 유럽적 차원에서의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유럽합중국을 명확히 목표로 하는 강령과 그러한 강령에 바탕한 국제적인 사회주의혁명정당이다. **혁명**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3자통합,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임천용

통합진보당이 출범하였습니다!

수임기관 합동호



진보의 집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역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부산광역시당

통합진보당이 출범하였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홈페이지 통합 안내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노심조(새진보통합연대)의 3자통합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들은 12월 5일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확정했고 1월 초에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이정희 공동대표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은 오늘 이후 정반대로 바뀔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진보의 실상은 노무현식 진보에 불과하고, 자본가

정당으로의 안착이라는 본질을 은폐하는 이 데올로기적 가리개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진보로 포장되어온 노무현 정권의 적자임을 자처한 국참당과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해 온 민노당, 노심조 같은 세력들의 통합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아래로 내몰았고, 이에 저항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반대를 외치던 농민들은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어디 이뿐이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여 군대를 파견했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한미 FTA를 체결했고, 미 제국주의 군사기지를 평택에 제공했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에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고 구속시켰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노동운동 내 출세주의자들의 결합

간단한 기억력과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다던 민노당과 노심조가 노동자들의 적인 국참당과 통합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민노당 지도부와 노심조는 정신분열 상태로 10여년을 지내왔다. 겉으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지만 속내는 출세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민노당 지도부와 노심조의 경우, 국참당과 통합하기 위해 당 대의원대회 결과를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다시 국참당과 통합에 찬성했다. 마치 국참당과 통합은 안 된다는 듯이 제스처를 취하다 며칠만에 본모습을 드러낸 노심조와 민노당의 최대주주를 자처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의 행보는 출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어쨌든 민노당 다수파는 이정희를 내세워 국참당과의 이른바 진보대통합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함께하기 위한 전략적 고지를 획득했다. 이러한 성공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전투적 노동자운동을 꺾어버린 ‘턱택에’ 민주노총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출세주의자들, 관료주의자들, 자본과의 타협주의자들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통합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노동운동의 전투파를 억압하고 탄압한 결과로 노동운동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출세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 추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보답이다. 자본가 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은 민노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거추장스러웠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출세주

노무현 정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진압법

"현 정부는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Copyright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경찰의 발차에 강아지 꼬리를 잡아서 얼굴에 맞은 노동자를 폭행하는 한 세상의 노동자를 폭행해 추방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1997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1997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1997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1997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 1997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고 있다. (노동자 죽임으로 나오는 '불안정부')
 © 1997-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의, 관료주의, 타협주의자들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의 대외적 표현이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결과 마침내 드러난 배신의 최종적 결과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통진당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행할 적대 행위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본가 정당이지만 형식적으로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는 허울을 쓴 채로 노동자들, 민중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의 말과 행동을 구분하고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통진당이 자본가 권력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적대가 전면화 되고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노동자운동에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이 총선, 대선에서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함께 자본가 국가권력의 일부를 떠맡으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더 큰 파산을 위한 예행연습



민노동당과 민주당 성남시장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현 이재명 성남시장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상표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것으로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출세주의자들, 타협주의자들은 결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의 단적인 두 가지 사례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는가? 성남시 판교 철거민들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생존권 문제로 성남시와 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공동정부 지지체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은 지난달 철거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철거민들을 고소하고 언론들을 통해 보도하게끔 만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작극은 동영상 공개로 얼마 가지 못했다. 그러자 12월 2일에는 철거민들의 집회를 시청 차량을 동원해서 방해하다가 철거민들에게 집회방해죄로 고소당했고, 며

철후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하기까지 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인권변호사로 행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나라당이 성남시정을 운영할 때 철거민들의 변호사로 나왔다가 패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철거민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시의회 민주당원들은 철거민들에 대한 규탄결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함께하고 한 자리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남시장 보좌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노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철거민들이 민주당 지방정부 하에서 여전히 철거의 위협 속에서 지내고 있는가? 한나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했다고 해서 특히 더 이상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 진보정당 당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면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는가? 김대중 정권 이후 본격적으로 청소업무가 민간에 위탁

되었고,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들은 청소업무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원주시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다자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운영자가 사회당 당원이고, 민노당 당원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다자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노총 측 노조를 핑계로 중부지역 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조차 투쟁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 없다는 것을 “사회적 기업”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자발적 착취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런데 공공롭게도 성남시에서도 이미 민간위탁된 청소용역업체 16개 가운데 10곳을 내년 2월까지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는 등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노동자들을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간접고용 방식으로 착취하겠다는 발표에 다름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의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민노당은 이미 자본가들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하는 방식을 이미 습득했고, 민주대연합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전주 버스 노동자 파업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노동자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FTA에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일뿐이며 이러한 자본가 정책의 함께 하여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착취에 나서지는 것은 결코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이다.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한 인천시장 송영길과 충남도지사 안희정 같은 자들처럼 내놓고 찬성해도 민주대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연합의 본질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연합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지방정부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노당은 노동조합 관료들처럼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중재자로 나선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당원인 정규직 지부장과 합작해서 정리하는 데 앞장섰다. 올해는 한진중공업에서 당원인 채길용 지회장이 직권조인으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아무 비판 없이 가다가 마침내 국회 환노위 권고안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했다.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출세주의자들, 관료들, 열우당의 후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에 대항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고 마침내 자본가 국회로 끌어들이며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

라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민노당은 국참당, 노심조와 진보대통합이라는 2011년 목표를 달성했고, 2012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진당에 대한 현 지지도 추세라면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획득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획대로 2017년 단독집권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잘해야 사민주의로 치장한 자본가 정당의 집권에 불과하다. 이때에는 진보정당 운동의 파산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동원한 민주대연합의 파산을 알리는 선포식이 될 것이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위기 정세는 노동자계급에게 혁명이나 아니면 파멸이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운용할 수 있는 개량의 여지는 더 이상 없어져버렸고 자본주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사민

주의 정당에 대한 권력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 정당들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11월 말 연이어 권력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사민주의 정당들은 개량의 떡고물을 노동자들에게 뿌려야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개량은 고사하고 긴축정책을 실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사민주의 정당들은 자본가계급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개량이 아니라 심지어 긴축을 실행하기 위해 권력의 자리에 앉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사민주의 정당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자본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통진당의 결성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처절한 몸부림 중 하나로 봐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한나라당식 위기극복은 불가능해졌고, 머지않아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다. 그 결과 야권연대로 권력의 단맛을 보기위해 모여들고 있다. 그것을 위해선 진보로 포장되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으로 포장되든 상관없다. 민주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정세는 민노당이 급격하게 국참당과 함께 한 것처럼,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함께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놓지 않을 것이다.

반면,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과는 비

참한 몰골로 끝이 나버렸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함으로써 결국 죽 썩서 개주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노동운동의 출세주의자들이 주도한 1997년의 국민승리 21 시절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출세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체육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할 때, 밖에서는 구역질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선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전투경찰에 맞선 투쟁을 진행했었다. 후자의 경우도 자신을 조직할 정치정당,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채 짝지 않은 국면은 이렇게 저물어 버렸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개량주의, 의회주의 정당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처절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계급의 꼬리로 동원하는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으로 나아감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결국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야권연대에 대한 반대, 자본가정당과의 연대 반대를 내걸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조직적 독자성은 정치적 독자성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연한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선본에 민주당과 함께 결합한 진보정당들은 결코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독자성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민노당이 아닌

또 다른 진보정당을 만드는 길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정당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버팀목인 사민주의의 역할을 전담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 전후 보다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지만, 보다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민노당에 배타적 지지한 10년이 넘는 세월이 아까워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지속한다면 노동자운동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관료화된 노동조합이 압력단체가 되어서 민주당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파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선거 때 민주당에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미국 짝 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통진당에 인적, 물적 지지를 포함한 그 어떤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호랑이 피하려다가 여우를 만나서는 안 된다. 여우같은 열우당 시절 노동자들이 당했던 것을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되풀이 해야겠는가. 이러한 길은 지난 10여년의 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결정적으로 노동자운동을 후퇴시키고 자본가 정당의 꿈무니로 전락시킬 것이다.

자본가계급에 대한 정치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오직 자신의 힘을 믿고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오직 자본주의의 철폐를 위해 일관되게 정치적, 조직

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루하고 눈앞의 성과가 곧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움켜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역명**

10년이 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결과 마침내 드러난 배신의 최종적 결과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통진당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행할 적대행위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본가 정당이지만 형식적으로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는 허울을 쓴 채로 노동자들, 민중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의 말과 행동을 구분하고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통진당이 자본가 권력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이종범

2008년 투쟁이 단일집회에서도 수십만을 동원했지만 결국 명박산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지도부의 나약함이었다. 촛불국면에서 지도부는 이명박 OUT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우병대책위는 촛불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투쟁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고 통제된 투쟁을 진행하다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번 FTA 반대 투쟁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규모 면에서는 2008년 투쟁의 초입부를 단숨에 넘어섰지만, 지도부의 경우는 2008년 투쟁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



단일집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십만이 함께 했던 2008년 촛불투쟁 모습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11월 22일 한미 FTA가 가결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연행과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2008년 촛불투쟁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새파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면, 이제는 찬 서리에 시들여 가는 레이덕 정권에 대한 결정타가 되도록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투쟁이 단일집회에서도 수십만을 동원했지만 결국 명박산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지도부의 나약함이었다. 촛불국면에서 지도부는 이명박 OUT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우병대책위는 촛불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투쟁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고 통제된 투쟁을 진행하다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번 FTA 반대 투쟁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규모 면에서는 2008년 투쟁의 초입부를 단숨에 넘어

섰지만, 지도부의 경우는 2008년 투쟁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 민노당을 비롯해 야권연대에 혈안이 되어있는 세력들은 민주당과 국참당 같은 세력들을 초청해서 투쟁의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한 당들과 함께 비준반대를 외치는 꼴은 참으로 역겹다. 더구나 FTA 반대 파업을 전개한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농민들을 경찰 폭력으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세력들이 함께 이번 투쟁의 지도부로 나서서 한미 FTA 폐기투쟁을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국익론과 선거 심판론을 극복하자!

한미 FTA 폐기투쟁이 거침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는 야권연대로 뭉친 세력들이 “한미 FTA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 FTA가 1%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야권연대 세력들은 국익 이외의 다른 이유를 들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았던가?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전제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오랜 전통



한미 FTA를 체결한 당들과 함께 비준반대를 외쳐서는 안된다

이다.

불행하게도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야권연대 세력들이 외치는 국익도 자본가 계급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민노당과 같은 세력들은 야권연대를 외치면서 이들의 장단에 춤추고 결국은 국참당과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OCCUPY 운동에서도 야권연대에 함께 한 민주당처럼 99%가 아닌 세력들이 단상에 서는 순간 그 운동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FTA도 결국은 1%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얼렁뚱땅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할 때 그 투쟁은 일관된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선거 심판론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획득해서 한미 FTA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불어넣고 있다. 한미 FTA 날치기에도 보았듯이 민주당을 믿고 국회일정에 따라서 투쟁이 동원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금 당장 각 지역에서 대중투쟁이 올라오고 있고, 서울의 경우 촛불 투쟁 이상의 가두투쟁 전술을 동원해서 노회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강화



노무현 정부때 이라크 파병과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했던 것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았던가?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오랜 전통이다.

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대중투쟁은 야권연대가 투쟁을 국회로 옮겨가고, 내년 선거를 위한 세몰이로 대중투쟁을 적당히 통제하려는 선거심판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대중투쟁의 상태는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이 총대선까지 가지 않고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기세가 올라와 있다.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3일 정당연설회를 통한 마무리 집회에서 김영훈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민노당 당원으로 소개를 했다. 부차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로 끝마치겠다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자기검열이다. 말로는 이명박을 퇴진시키자고 하면서 행동은 이명박 정권이 허용하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우리가 99%! 저항은 계속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 4년 동안 억눌렸던 99%의 모든 분노와 불만을 다 들고 나와서 투쟁해야 한다.

래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대중 투쟁의 시작과 끝을 정당연설회 형식을 빌어서 진행하면서 정당들이 주도하게끔 진행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국익에 반하는 FTA라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 의식을 흐리고 결국은 선거심판론으로 언제든지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이명박을 퇴진시킬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투쟁들만 진행하고 있다. 그것만 아니라 무대에는 FTA 체결 원흉들이 올라와서 낮 뜨

거운 줄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99% 직접행동 요구로 투쟁을 확대하자!

야당들의 계획대로 내년 선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직접행동과 대중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투쟁의 요구와 방법이 지금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 4년 동안 억눌려 온 99%의 모든 분노와 불만을 다 들고 나와서 투쟁해야 한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물가폭등, 대학등록금, 최

저임금제, 야간노동, 노동3권 불인정, 민주주의 후퇴, 재벌 프렌들리 등등. 이 문제들은 이후 한미FTA 체제 하에서 더욱더 심화되겠지만, 이미 쌓일 대로 쌓여 폭발 직전이다. 내년 선거로 민주당 등 야권연대 세력들이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대선에서 집권하면 과연 이 문제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이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이듯, IMF 이래 정리해고제 도입과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흉도 김대중 정권의 민주당이다. 따

99% 직접행동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한미FTA 폐기!
-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은행 및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라서 “선거 심판론” 따위의 꿈을 거부하고 99%의 직접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준무효”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분노와 요구들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의료,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면서 투쟁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졌다. 한미 FTA 단일 사안만 가지고 전개된다면 선거 심판론 같은 민주당 등의 꿈수가 먹혀드는 토양이 될 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투쟁의 동력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9% 직접행동 10대 요구>가 필요하다.

이 요구들을 중심으로 투쟁 방법도 촛불집회를 넘어 확장해야 한다. 현재 연일 수천, 수만 명이 집회로 모여도 야권연대 국회의원들의 식상한 “날치기 규탄” 연설들을 수동적으로 듣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의 오클랜드 시위대처럼 우리도 집회를 넘어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투쟁사업장과 공단을 순회하며 총파업을 호소하고 선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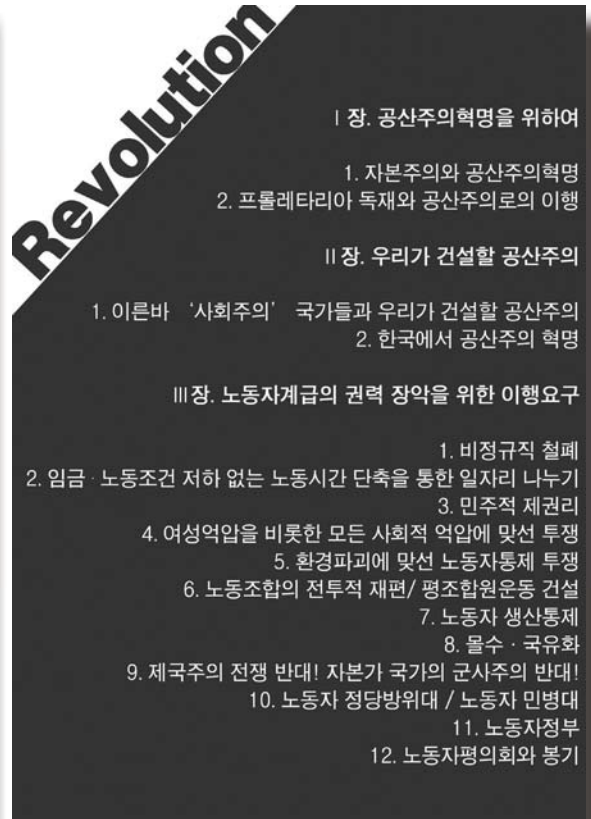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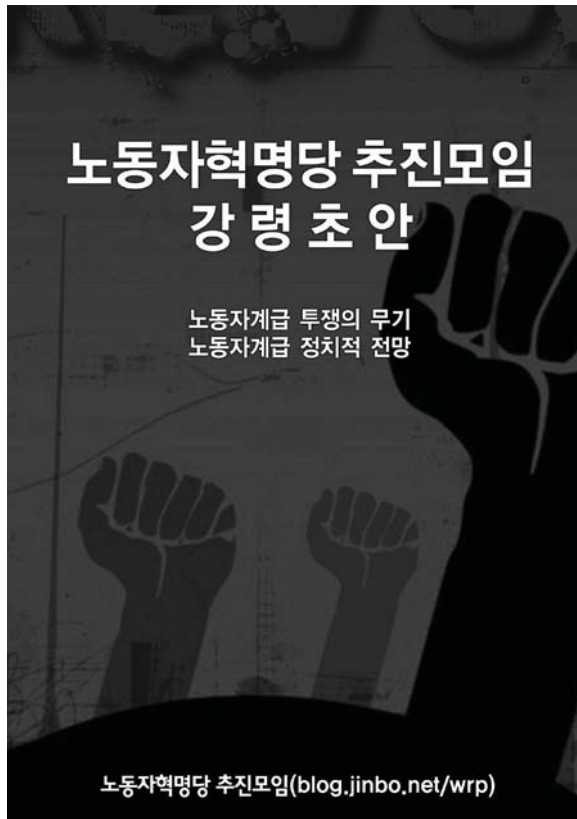
현장활동기들이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해 “비준무효”만 따라 외치는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들을 걸고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자. 간부 파업으로 총파업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에 나온 조합원들이 현장에 가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절실한 과제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에 투쟁의 기운을 실어 나르고 총파업을 지금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투쟁이 되게 해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실제로 가능케 하려면 촛불집회가 노동자 파업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그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요구들을 걸고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서는 대중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자! **역명**



강령초안 소책자 발간



I 장. 공산주의혁명을 위하여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혁명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II 장.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2.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III 장.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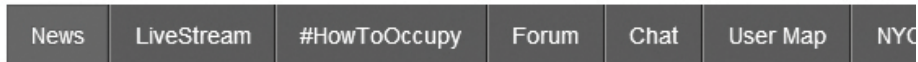
1. 비정규직 철폐
2.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민주적 재권리
4.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5.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동제 투쟁
6.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 건설
7. 노동자 생산통제
8. 몰수·국유화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 노동자 민병대
11. 노동자정부
12. 노동자평의회와 봉기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무기로써 강령초안 소책자를 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동지들은 아래 정보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안내하여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행일 : 2011년 12월 03일
-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3,000원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남궁 원



Occupy Philly Facing Eviction TODAY

Posted 7 hours ago on Nov. 27, 2011, 12:04 p.m. EST by OccupyWallSt

월가점거 시위대 홈페이지.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다" "유일한 해결은 세계혁명이다"라고 분명한 지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2001년 9.11 사건 이후 애국주의자들의 성조기 물결이 휩쓸 때, 누가 지금처럼 미국의 대중적인 점거투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대중적인 파업이나 비공인 파업 소식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곳이 미국 아니었던가?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점거 시위 형태가 미국 1,000개의 도시로 급속히

퍼져가고, 마침내(!) 지난 10월15일 80여 개국, 1,500여개 도시로 점거 운동이 확산됐을 때, 어떤 활동가가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의 세계화'가 오늘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월가 점거투쟁 구호인 '1%에 맞선 99%의 투쟁'은 이제 전 세계적인 구호가 되었다. 점거운동은 전 세계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아트들이 광장점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집트 타르히르 광장점거 투쟁은 무바라크를 무너뜨리고 무늬만 바뀐 기존 지배세력에 맞서 지난 11월22일 10만 명이 모여 다시 반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의 광장 점거 투쟁은 한 달 동안 50개 도시로 확산되고 노조 총파업 투쟁까지 이어졌으나, 2010년 9월 노조가 정부 협상안(현재 연금 수령자들보다 20% 낮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패배로 끝났다. 노조의 협상안에 분노한 젊은 세대들은 2011년 5월초에 20여만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으나 혁명적 투쟁으로 전화하지 못하고, 11월 총선에서 우파 국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자본의 지배에 침묵하며 속박됐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집단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벌어진 미국 위스콘신 예산안 수정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투쟁은 민주당과 노조 관료들의 개입으로 무기력하게 “반(反) 공화당” 캠페인으로 끝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월가 점거투쟁은 중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occupywallst.org>)에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다!” “유일한 해결은 세계혁명이다”라고 분명한 지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운동은 “리더 없는 운동, 아래로부터 진정한 창조적 변혁, 1%의 부패하고 탐욕에 맞선 99% 운동”으로 밝히고, 조직운동을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총회(general assembly)”를 개최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투쟁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은행 구제금융 비판, 채무거부, 학자금 · 교육제도 비판, 작업장 점거” 등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월가 점거 시위대는 대형은행인 브이브이브이(V.I.V.I)가 직불카드 수수료 5달러를 매달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은행 계좌 옮기는

월가 점거투쟁의 전개 양상

미국 ‘월가 점거투쟁’ 조직가가 밝히듯이, 이 투쟁은 이집트 ‘타르히르’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 점거투쟁에서 영감을 받았다. 지난 9월에 시작한 월가 점거투쟁은 미국 자본주의 금융 · 경제 붕괴와 함께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임금, 의료보험, 연금, 주택압류, 교육 등)에 저항하면서 2

민(people)모임이 구성되면서, ‘학교 살리기’ 지역 이슈 투쟁이 전개됐다. 이 투쟁 속에서 선진투사들과 함께 “우리의 학교를 구하자” “부자에게 세금을” 구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는 완전히 고장났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러한 투쟁의 경험과 인식이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월가 점거시위 한계와 시사점

월가 점거투쟁은 진행 중이다. 이 투쟁이 미국 사회 내에 광범위한 99%의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으로 확산되면서 혁명적 운동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 공화당 대선 국면으로 흡수될지 모른다. 특히 미국 사회 계급과 인종 관계로 볼 때, 월가점거시위의 ‘인종적’ 구성 문제는 중요하다. 백인 중심의 점거시위에서 벗어나,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에서 일부 극복되기 했지만, 흑인, 라티노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계 주민) 등 최하층 노동계급으로 파업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 하위 파트너로 존재하는 노조 관료들에서 벗어나 작업장 투쟁위원회나 총회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99%의 투쟁 확산을 위해서는 ‘월가의 금융자본’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가의 금융 자본가는 자본의 대리인일 뿐이다. 단지 금융자본가의 탐욕만을 문제 삼는다면, 무늬만 바꾼 자본가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현 자본주의 경제파탄은 1% 자본가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소유,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협정을 국회에서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거리에 대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통합진보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반이명박’ 구호로 정치 공학적인 상징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투쟁의 구호는 내용적으로 을사늑약, 애국전선, 나라를 팔아먹었다 등 애국주의, 민족주의 수사로 치장되고 있다. 이들의 장외투쟁



99%의 투쟁 확산을 위해서는 ‘월가의 금융자본’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파탄은 1% 자본가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사회적소유,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혁명 창간준비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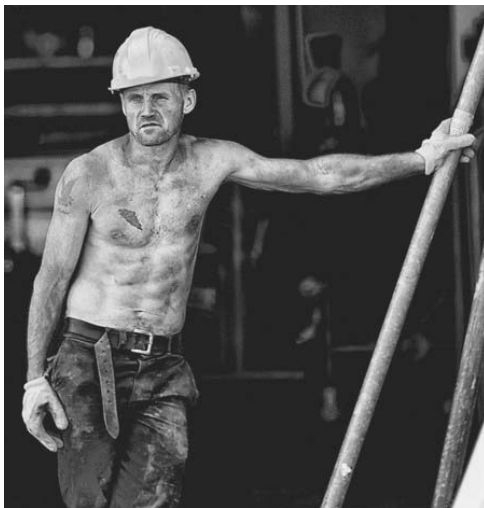
선포는 곧 있을 선거투표용지로 향하고 있다.
이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기초를 바꾸어야 한다.
정리하고 철폐를 '대중화'시킨 희망버스
대중의 힘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كل랜드 총파업투
쟁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노총 관료들의 총파
업 투쟁 지침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투쟁하
는 노동자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총회
에서 파업투쟁을 공장 안팎에서 제기하고 실
현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불안
전 노동 청년(프리캐리아트) 대중투쟁을 추동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명**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구재보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자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정부가 갑자기 교대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완성차를 비롯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고 또 한편으로는 장단을 맞추고 있다. 누가 한 몸이 아닐까봐.



정권과 자본은 한 몸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라며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야2교대는 노시간의 암묵적 동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는데 100% 임금 보존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권태성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주간 2교대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어려우며 라인 간 인력이동 권한을 노조에서 쥐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주간2교대를 시행할 경우 임금 삭감 및 노동강도 강화와 함께, 사측이 인력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설비투자나 인력투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 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있는 이상 연장근로를 통해 추가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채용 시부터 정년까지 고용보장, 강성노조로 인한 여유인력 전환배치가 어렵고, 노동법적 규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엄살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도 더 개악하고 강성노조도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야 주간2교대든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의도

정권과 자본에게 주간2교대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심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 민중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권과 자본도



11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GM 부평공장 방문과 그 다음날인 18일 개선안을 제출한 GM 자본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인다

나름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당근’을 내놓아야 할 필요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1월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GM부평공장을 방문해 한국GM 노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장시간 근로 개선과 교대제 개편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에 대해 GM 자본이 그 즉시 개선안을 전격 제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를 더욱더 치밀하게 수탈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겉으로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강성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 등 노동유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

고 있다. 또 이러한 정부와 완성차 자본의 전략이 먹힐 경우 그 파장은 조선, 전자, 화학, 철강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자본에게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는가? 정부의 주장대로 교대제가 변경될 경우 자본이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일정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로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의 자유화, 노조 무력화 등, 그 동안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빠른 시행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맞선 우리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유성지회는 공장에서 쫓겨난 후 6.22 투쟁(건설기계 충남지부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투쟁 한 번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전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굴욕적인 복귀를 해야만 했다.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하지 못한 결과 현재 5명의 동지가 구속(2명 실형 4년, 2명 실형 2년)되어 있으며, 저들은 계속해서 구속영장

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충남지역 노동운동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성지회 동지들의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 자본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를 통해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 UPH UP, 전환배치, 혼류생산,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미 울산에서는 1공장과 2공장 혼류 생산, 전환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주에서는 버스택다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현대차지부 이정훈 전 지부장은 오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하게 될 임금 보존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반면 지난 4일 새롭게 당선된 문용문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기아 공동투쟁으로 2012년 상반기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전면 실시”를 강조했다. 또 배재정 기아차 지부장 역시 ‘주간연속 2교대제 기아-현대차 동시 시행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빠른 시행”



빠른 시행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적 입장에서 올바른 시행이 중요하다

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해 온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빠른 시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 자본의 의도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데에 맞춰져 있다. 하물며 자본이 임금을 보존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비용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1% 부자들에 대한 99%의 투쟁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 투쟁은 99%의 투쟁을 더욱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를 단순히 임금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완전월급제 및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관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투쟁의 기치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가교로 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위한 요구들

- ★ 밤엔 잠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
- ★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의 자유화 등 자유로운 인력운영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 ★ 완전월급제 쟁취!, 생활임금 쟁취!
- ★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 ★ 정규직-비정규직, 조직-미조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의 포문은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노조 집행부만의 협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라인별, 선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들을 모아나가기야 한다.

완성차 공장에서 이 요구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전 산업으로 미칠 것이다. 때문에 완성차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품사 노조, 조선, 철강 등 금속노조는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붙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조업 전체, 실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까지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고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역명**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박현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투쟁이 일반 사업장 투쟁보다 어려운 것은 하청 사장과 원청을 상대로 싸워야 하지만, 원청 노조와의 관계가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청 노조는 우리 투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연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정리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를 통제하려 한다. 이러한 부분은 이상수 전 지회장과 농성 당시 얘기 한 적이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농성장 사업부별로 짧게

나마 간담회를 한 적도 있다. 조합원이 버티주지 못하면 지회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해줘야 할 몫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게 면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조합원이 흔들릴 때 집행부가 바

로 잡아주는 것이 역할이다. 25일 동안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농성장에 올 때 마다 지회장과 조합원들을 흔들어 놓고 갔다. 신 김밥연대로 허기진 조합원을 우롱했다. 지회장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투쟁을 정리하려 했고 보고대회를 통해 압박했다. 그 결과 지회장은 쟁대위 회의를 통해 정리하려 했으나 쟁대위 동지들이 잘 버텨 줬다.

정규직 지부는 오히려 악의적인 여론 물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투쟁을 방해 했다. 당시 우리 지회가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회는 그러하지 못했다.

그것을 결정하는 지도부가 지부와외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투쟁을 이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농성을 접고 지회가 2차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비리가 폭로됨으로써 지회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후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대위의 비리가 또 터지면서 우리 지회는 더욱 바닥을 치게 되었다. 하지만 더 문제 되는 것은 비대위가 노동조합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리사건보다 비대위의 무책임한 집행이 조직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현장 조합원의 신뢰는 떨어졌다. 현장 활동가들이 위축이 되어서 아무런 투쟁도 만들어 나가지 못했다. 또한 55명의 해고자와 500여명의 징계자가 나왔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해고자들까지 생계 문제로 떠나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전 사업부가 함께 한 투쟁(생산타격 투쟁)은 3번이다. 05년, 06년 그

리고 2010년, 모두 3번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전 두 번의 투쟁과 달리 2010년 투쟁은 다른 게 있다. 수습하는 과정에 기존 활동가들이 없다. 그 동안 역량 있는 활동가를 만들어 내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놓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전 우리의 역할로 돌파하자.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한다. 총회에 대한 고민은 그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 된 것이다.

총회기획단을 현장사람으로 구성했다. 총회에 260여명의 조합원이 왔다. 많은 동지들은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어떠한 방향도 만들지 못했다. 어떠한 결정도 못했다. 진행상의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현장의 동지들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간담회, 보고대회, 식당 선전전을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고 있다는 게 나름의 성과이고, 이것은 분명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당장의 대중 파업이 안 될 지라도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총회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현장조합원의 노력은 이후 우리 투쟁의 시발점이다. 현안 문제 대응을 통해 조직력을 복원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가를 키워야 한다. 비대위만이 아니라 이후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역할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의 비대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전 집행부의 비리는 이러한 활동가가 없고 또한 지회의 운영 방식이 너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언제나 또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활동가들이 올바른 집행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후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고 오기만 기다린다면 잡을 수 없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최병승 동지의 파기환송심 판결도 남아 있고, 지노위 판결도 남아 있다. 판결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대차가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비대위는 전 사업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상수 전지회장의 탄원서로 인한 3.4 공장과 엔진 변속기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통합사업부는 조직조차 못하고 있다. 이후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여 전 사업부가 같이 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사



업부도 조직을 하여 이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당장의 현안 문제인 3공장 신차투입 문제, 생관 외주화 전략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한다. 2, 3차 업체도 같이 조직해서 외주화 대응을 함께 해야 된다. 2, 3차 업체도 조합 가입의 대상이고, 조합원이 있다. 노동조합 조직력 확대를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만 한다. 고민하고 만들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망해가는 지름길이다. 실패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해야 될 일도 만들어야 한다. 당장의 큰 투쟁을 못 만들어도 하나씩 만들어가자, 그것이 2차 파업의 출발점이다. **혁명**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투쟁,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간담회 후기 -

김병호



집회신고를 위해 상경한 비지회 동지들(오른쪽)과 사측에서 고용한 집회 신고 용역들

11월 15일은 작년 겨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새벽 울산에서 몇몇 동지들이 상경했다.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신고를 위한 것이었다. 15일 도시락을 사들고 서초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을 때 울산에서 상경한 8명 동지들 앞으로 사측에서 고용한 집회 신고 알바(?)들 30여명이 장

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사측에서 파업 1주년 및 비지회 총회를 염두에 뒀는지 총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집회 신고 용역 수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집회 신고조차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이다.

11월 20일에는 비정규직 지회의 총회가 열렸다. 파업 1년,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11월 24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서초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지회 동지들과 2010년 투쟁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총회를 전후한 비지회 상황과 향후 투쟁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

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지난 투쟁을 돌아보는 것은 다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올 초 2차 파업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금 내년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10년 투쟁을 마무리하며 이미 여러 평가글들이 제출되었고, 조합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간담회에서 토론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2010년 비지회 투쟁의 시작부터 이 투쟁에 연대, 지원보다는 온갖 방해와 기만을 일삼은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당장 올해 한진 투쟁에서도 채길용 집행부가 어용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노당, 금속노조에서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회의 한 동지는 투쟁 당시 이경훈의 태도에 대해 지회 및 연대세력이 모두 나서서 공격해야 했는데, 비정규직 주체들에 맡겨버렸다



2010년 파업 기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1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며 아쉬움을 표했다. 당장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지회와 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시 정규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부 집행부를 비판했을 때 정규직이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그리고 어용 세력이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라 했다. 당시 노혁추를 비롯해 많은 정치조직에서 입장을 수차례 내긴 했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공장 집행부 권력이 철용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활동가들 혹은 현장조직들조차 관료적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11월 15일 시트 점거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속노조 내에서는 연대파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있었다. 금속 파견대 의원인 쌍차 동지들은 연대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저런 조건부 파업 대신 아무 조건 없이 구체적

인 날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쌍차 투쟁 당시 경찰과 용역들의 공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공장 진입이 아니니 하면서 연대 파업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특히 황인화 동지 분신 시점에서 적극 진입투쟁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분신 이후 1공장 담벼락 뚫고 넘어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기였다. 물론 지회 동지들이 벽을 뚫는다 해도 집회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단위들이 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바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부를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판단을 꺾어버리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정상적 시스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였다. 분신 당일에 지회 동지들의 투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경훈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연대 동지들은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투쟁 요구를 꺾어버렸다. 지회 동지들은 당시 지부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독자적인 전술 기획을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쨌든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97, 98년 정리해고



파업5일차 연대투쟁을 약속하는 이경훈 지부장

도입 이후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일 뿐이고 실제로는 “차별 철폐” 주장 정도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실질적 과제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대 요구로 표현되는 핵심적 주장과 함께 완강하게 공장점거 투쟁까지 진행한 것이다.

비지회 선거 무산의 의미

지난 8월에는 비정규직지회의 4기 집행부 선거가 있었다. 과반수 부결로 결론 난 선거 결과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간담회에 함께 했던 비지회 동지들, 특히 비지회 투표 및 선거 개표에 참여했던 한 동지는 선거 전반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현자 비지회 조합원들의 일반적 정서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문자나 직접 투표 독려를 해도 투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7년 이상 그래왔고, 어용 후보의 단독 출마시에도 반대

표가 30~50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870 가량 투표 가운데 531명이나 반대를 찍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구체적인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투표 당일 투표소별로 투표함이 왔는데 어디 사업부인지 표시도 없고, 투표함도 박스에 구멍 뚫어서 만든 조작한 투표함이었다. 전체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각 투표소마다 1~100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 투표를 17시 종료인데, 그때 각 투표소별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사무실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선관위원장이 투표소 돌면서 수거해서 1공장에 모아다 놔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무장이 선관위로 가져왔다. 그 과정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별 인원, 투표수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 데 다 섞어서 개표를 진행했다. 또 투표용지가 날개로가 아니라 뭉텅이로 집혀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 대한 선관위 회의 내용 및 결과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선거 개시와 동시에 선관위가 선거 기준을 마련해서 공지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 금속노조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실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몰라서 그

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태껏 선거 과정을 거쳤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금속노조의 진상 조사 결론은 의심은 많으나 물증이 없어서 유효한 선거로 결론짓고 말았다.

선거 이후 설문을 통해 500명 이상이 선거 과정에 문제 있다는 의견과 서명을 제출했다. 작년 투쟁 이후에 다시금 집행부 정상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 그리고 이를 보여준 서명 결과, 그리고 이와 배치되는 선거 결과. 하지만 이 선거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준 총회

2차 파업 전후한 재정 비리와 8월 선거 무산에도 불구하고 비지회 동지들은 파업 1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총회를 진행하고 또 다시 새로운 투쟁을 모색했다. 지난 총회에는 300



11.20.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좀 안 되는 인원이 모였다. 총회 당일에는 당장 인원만 보고 실망하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지난 총회 이후 오랜만에 각 사업부별 대표들도 다 모였고, 특근 잡혀서 못 나온 동지들, 집회 신고 투쟁으로 상경한 동지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300 이상이 총회에 뜻을 모았다고 하는 평가다.

총회 자리에서 그간 궁금했던 재정 비리 문제와 그에 따른 변제 문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횡령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변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총회를 앞두고는 설문 형태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자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한다. 작년 투쟁 이후 현장 출입도 안 되고, 복귀한 조합원들도 조반장들 눈치 보느라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설문 조사 형태로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설문에서도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빨리 지회 집행부 구성해서 자리 잡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

두 달여 전에 충남 지노위에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해고 초창기에 부당해고 건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 쟁기 때문이다. 2004년 불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노위, 중노위에서 뒤집혔다.

그런데 최근 아산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산 판결 나면서 현장 동지들이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측도 충남 지노위 결과 이후에 부산 지노위 판결이 아산처럼 나오면 불리하니까 법무법인 김&장까지 투입했다. 지노위 심리 과정에는 조반장들을 사측 증인으로 투입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산이 2달 전에 지노위 판결이 난 반면, 울산의 지노위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심판 청구 자체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회 동지들은 지노위 청구를 두고 논란을 거쳤다. 이미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노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생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대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그나마 실업급여도 해고 직전 파업으로 인해 최저치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장에 해고자 중에는 실업급여가 끝나고, 금속 신분보장기금도 기금 부족으로 두 달 지급된 후에 중단되어서 아침 출투에 참여한 이후 낮에 생계활동 하는 동지들도 많은 상황이다.

지노위 승소할 경우 생계로 어려움을 겪던 동지들이 다시 움직일 계기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회 동지들은 지노위 판결 자체가 중노위, 법원으로 이어질 텐데, 당장 기대 심리 말고 실질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많은 동지들이 생계에 나서거나, 아침에 출투 결합하고 생계 나가거나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비지회와 달리 현대자동차 지부의 경우 단협에 따라 지노위 결과에 따라 일단 복직시켜 놓고 중노위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 비지회 동지들의 경우에도 충남 판결이 대법 판결 영향으로 업체가 해고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이고, 부산 지노위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원직으로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지회 내부 토론은 진행한 바가 없고, 비투본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잠

시 논의된 바가 있다고 했다. 업체로 복직하고 이후 조직화를 피하지는 의견, 정규직으로 가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장 사측에서 그런 안을 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동지들이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간담회에 함께 했던 동지들은 대법 소송과 관련이 없다면 현장에 들어가 버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현장 복귀의 의미에 대해 한 동지는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단순히 현장에 돌아가 일하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에게 힘들게 시는 모습이 아니라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지노위 판결 이후로도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아산에서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피케팅이라도 하려들면 바로 용역들 주먹 날아오는 상황이다. 사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가 다시금 투쟁에 나서면서 당장 지노위, 중노위 판결을 압박하는 것과 별도로 판결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권력

간담회를 진행했던 24일 바로 다음 날은 신입 지부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투쟁 과정에서의 지부-지회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신입 지부 집행부와의 관계 및 전망에 대해서 물었다. 지회 동지들은 신입 지부장이 당선 일성으로 3가지 의제를 가지고 CEO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했고, 그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작년 지부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4대 요구안/ 8대 요구안 문제로 지회와 지부가 충돌했었다. 신입 지부 집행부가 소위 민주과라 하더라도 요구안을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하고 딱딱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부딪쳐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향후 투쟁 요구를 둘러싸고 지부와 지회의 관계 설정 혹은 사전 조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몇몇 동지들은 신입 지부장 취임 이후 지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입

지부장이 당선되자마자 비지회 총회 때 발언 혹은 글도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지부/ 지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권력의 문제였다. 즉 이후 투쟁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는 정규직 어용이 현장권력을 해체해 버린 결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경훈 어용집행부 하에 있다 보니 원하청 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높아져서 밖에서 어떻게 투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사측 관리자들이 라인 지키고 있고, 회사 출입시 시위용품 검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고자들이 조합원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밖에서 투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현



비정규직 조합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현대차 아산공장 과리지와 용역업체 직원들

장의 동지들이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사측이 현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회 동지들이 신임 지부 집행부에 게 바라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투쟁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해 주라는 것이었다. 즉 정규직의 현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통의 틈워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정규직 대의원조차 하청 사장한테 밀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지회 동지들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8대 요구는 변함없으며, 이를 훼손시키는 순간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8대 요구에 수정을 가할 경우에 현장 조합원들이 지회 집행부의 투쟁의지에도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 투쟁의 의의와 향후 투쟁 전망

마지막으로 지회 동지들에게 집회 신고 투쟁의 의미와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지회 조합원들 대부분이 생계 문제 걸려 있

고, 젊은 나이에 가장 역할을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투쟁 전망의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계획이고 뭐고 일단 뭐라도 해보자고 상경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말기, 누적되는 사회적 불만 등이 희망버스 투쟁, FTA 투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유리한 정세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회 동지들이 투쟁의 전망을 낙관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소위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제 단체들 및 노동조합이 선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투쟁이 뒤로 밀려날 가능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년 투쟁 이후 비정규직 동지들의 상처들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내년 투쟁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당장 이번 집회 신고 투쟁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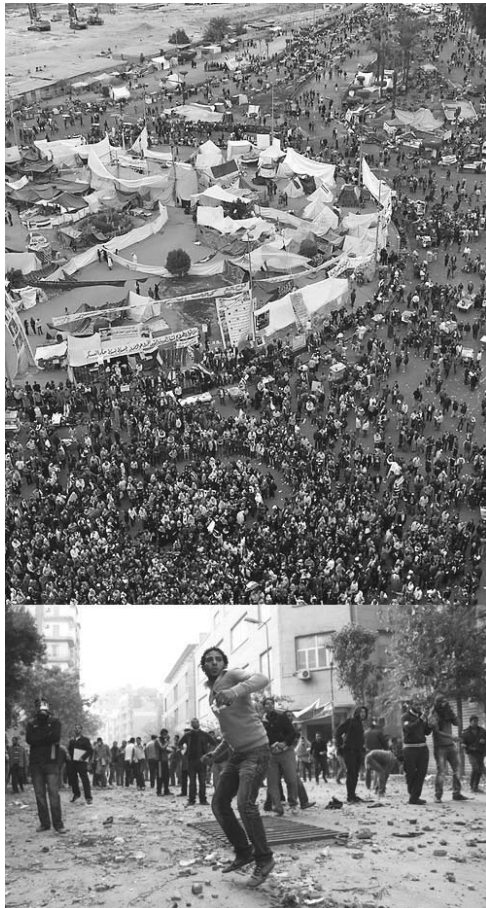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 그리고 이번 집회 신고 투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전면화 하면서 실질적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간담회 후기를 마무리한다. **혁명**



반혁명인가 계속혁명인가의 갈림길에 선 이집트

김병효





2011년을 대중투쟁과 혁명의 해로 만드는데 선봉장 역할을 한 중동혁명의 중심으로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에게 영감을 준 이집트혁명! 이 혁명이 지금 패배의 위협에 처했다.

11월은 이집트혁명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달이었다. 다시 한 번 타흐리르 광장이 수십만 명의 시위대로 꽉 찼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알렉산드리아와 수에즈, 마할라 알 쿠브라 등 여러 도시들에서 거리를 메웠다. 다시 한 번 유혈 충돌로 시위대 수천 명이 죽

거나 다쳤고, 이 때문에 과도내각이 군부에 사퇴서를 내고 전격 퇴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모하메드 탄타위 군사령관(현 군사최고위원회 의장)과 군사최고위원회가 물러나고 민간인 “구국정부”에게 즉각 권력을 이양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에 카말 알 간주리를 수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군부 지명 내각이 들어섰다.

수십, 수백만 명이 연일 거리 시위와 광장 점거에 나섰다지만 아무 가지적 성과도 쟁취하지 못했다. 훨씬 더 불길한 것은 며칠 뒤인 28-29일에 있는 1단계 총선(총선이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가 하원 선거이다)의 결과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반혁명에 커다란 성과를 안겨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무슬림형제단의 정치 프론트인 자유정의당이 가장 많은 36.6%의 득표율을 획득했고,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 조직들의 연립정당인 누르당이 24.4%로 2위를 차지했다. 자유주의자들의 연합체인 이집트블록은 13.4%를 얻었다. 반혁명의 또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이번 선거에서 여성에게는 단 한 석도 할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무바라크 퇴진 이래, 이집트 민주주의혁명은 권력을 구체제의 장군들 손에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군부가 지명



11월 투쟁으로 시위대 수천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에게는 단 한 석도 할애되지 않았다. 수도 카이로에서 한 여성이 총선 후보자들의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담벼락 아래 앉아있다

한 정부 대신 이슬람주의가 지배하는 정부나 또는 심지어 “구국전선” 정부 -- 이슬람형 제단과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되는, 그리고 타 흐리르 광장 점거를 이끈 청년조직들의 몇몇 명목상의 대표자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 가 들어서더라도 노동자와 청년, 여성들에게 절실한 민주주의혁명의 요구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집트에서 제한된 민주적 자유나마 존재하는 것은 오직 대중들의 광장점거와 대중파업 덕분이다.

최근의 투쟁들

가장 최근의 격렬한 가두투쟁은 주말인 11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날 시위대는 타흐리르 광장에 다시 텐트를 치려고 했다가 폭동진압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혔다. 이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의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광장에 몰려와서 경찰을 내몰고 마침내 광장을 탈환, 다시 점거했다.

수에즈와 알렉산드리아, 만수라, 마할라 알 쿠브라 같은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거리의 항쟁으로 3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은 고무탄과 산탄, 심지어 실탄까지 쏘아 댔고, 시위대는 쟁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

탄압 조치들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군부의 노골적인 시도가 2월혁명을 일궈낸 대중운동을 재점화시켰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12,000 명 이상의 민간인이 군사법정에 구인되었는데 이 숫자는 무바라크 30년 독재 전 기간 동안의 숫자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

노동자계급의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

11월 29일, ‘혁명적 섬유노동자연맹’이 타 흐리르 광장 점거자들에게 선거에 대당하는 카드로 민주혁명평의회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무슬림형제단과 누르당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선거를 통해 획득한 그들의 “민주적” 권한을 사용하여 광장의 혁명적 청년들과 새 독립노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혁명에서 어느 하나의 전술을 물신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정세가 다르면 같은 전술이 전위와 대중을 함께 융합시키기보다는 전위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대중의 눈에 2월의 무바라크와 11월의 탄타위 모두 권력의 끈을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은 “정통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광장 점거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의 결의가 수백만 대중을 전취해 낸 것이다. 오늘 선거의 “정통성”은 (몇몇 점들에서 부정선거였다 하더라도) 이슬람주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위협은 그들이 이 지지를 이용하여 좌파와 전투적 노동자 전위들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올해 2월 무바라크 퇴진을 위해 파업을 벌인 가스산업 노동자들



▲지난 2월 10일, 카이로에서 이집트 박물관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월 13일 카이로 람세스 거리에서 파업중인 이집트 텔레콤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월 17일이집트 만수라에 있는 기름 및 비누 공장의 근로자 1천 2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2월 27일 노동조건 개선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은행 노동자들

이 노동자 농민들과 더불어 새 이집트를 세우고 혁명을 남아 있는 다른 독재체제들로 확산시키는 데에 민주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명을 상시적인 것으로, 계속혁명/영구혁명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워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혁명은 일체의 반혁명 -- 자유주의 자본가 독재든 이슬람주의 독재든 또는 복고한 군부독재든 -- 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다. **역명**

총파업 · 평의회 · 봉기

“제2차 혁명”은 탄타위와 장군들의 철저한 청산과 장교단과 경찰의 해체뿐만 아니라 사병들에 의한 모든 장교 선출, 헌법제정회의에 파견할 소환 가능한 대표자 선출과 함께 근로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총파업이 대중적인 민중봉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바 있는 조직, 즉 노동자 병사 농민 평의회 창설이 또한 필요하다. 평의회 창설은 한편 대중적인 노동자 · 청년 정당방위대 구성을 요구한다. 정말이지, 평범한 대다수 이집트 인민 대중이 그들의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혁명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혁명은 진정으로 멈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혁명 전위세력들은 이것을 강령으로 구축해내야 한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권력을 자신들의 손으로 움켜질 때까지



[인터뷰] 재능지부투쟁 1500일을 앞둔 유명자 지부장

“특수고용노동자도 얼마든지 단체협약 쟁취할 수 있고,
유예기간 없이 해고자 전원이 원직복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다.”

[편집자] 투쟁 1500일을 앞두고 '100일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재능지부 유명자 지부장에 서면으로 물어보았다. 지난 <<혁명>> 창간준비 1호에 강종숙 학습지노조위원장 이 기고한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가 많은 <<혁명>>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재능 동지들이 어떤 결의로 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기고 글을 통해 절절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장투사업장 투쟁에서 '유예기간을 둔 선별복직' 같은 합의안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투쟁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를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결같이 독자들은 말했다. 유명자 지부장도 장투사업장 투쟁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 치의 뒤짐도 없어 보였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유예기간 없는 전원복직!' 우리는 복직을 위해 3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기간만큼 더 싸워서 3년 되는 날 복직하겠다 라는 각오로 싸울 것이다."



1. 투쟁 1,500일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7년 단체교섭을 통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임금에 대폭 삭감되는 안이

게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회사는 계속해서 노동조합 죽이기에 매진했는데, 변경된 안에 동의하지 않는 현장 교사에 대한 재계약불가 협박, 수수료(임금)제도 재계약, 휴가비·어린이날 선물 폐지, 각종 제도개악에 의한 노동조건 저하 등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고, 이에 맞서 저항을 조직한 노동조합과 새롭게 당선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단체협약 일방파기, 전임자 해고,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 제기, 재산압류·경매처분, 용역깡패들의 성추행과 폭행, 농성장 폭력철거, 조합원 전원 해고 등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해 오고 있다.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투쟁이 시작됐는데, 당시 집행부는 회사의 그러한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상태와 역관계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노조라면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노동조합에게는 불리하고 회사에



2. 그야말로 노동탄압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특히 재산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에 이은 경매처분까지 이어지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알기로 노동조합 투쟁으로 인해 압류에 이어 실제 경매 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우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빨간 압류딱지가 실제 조합원의

살림살이, 노동조합 사무용품에 붙여지고, 노동조합 방송차량과 조합원 차량이 압류되어 눈앞에서 끌려갔다.

대한민국의 법은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 결코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례들을 언론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알려내고 동지들에게 연대

혁명 창간준비 4호

를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여론의 압박을 받은 회사가 조합원의 살림살이는 경매처분을 하지 못했지만, 나머자들은 경매처분 했거나 현재 1년 가까이 압류된 채 끌려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초유의 사태 앞에 우리 진영의 대응은 미약했고 언론의 관심은 일시적이었다. 이러한 압류·경매 사태 외중에 현대자동차 아산지회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지 2인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이렇다 할 대응 한번 못하고 결국 그 동지들이 자신들의 돈을 내고 압류물품들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되사야 했다. 다시 말해 투쟁의 정당성과 반대로 결국 투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회

사 측의 손해에 대해 스스로 돈을 내어 물어주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는데 철도노조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물어준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선례가 되어 결국 투쟁 돌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나 투쟁회피의 핑계거리가 될 것이고 현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조합과 동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대응이 없으면 조만간 또다시 배달호, 김주익 열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 동지들이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교훈을 벌써 잊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3. 투쟁 1,500일을 앞두고 '100일 집중투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간단히 소개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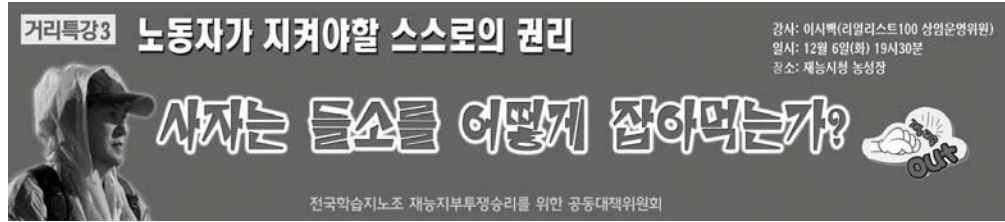


지난 10월 20일이 겨울을 보내고 다섯 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던 농성투쟁 1,400일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 한 번 끝내보자 라는 각 였다. 앞서 언급한 것 으로 동지들의 의지를 모았다. 언제까지 농성 처럼 사측의 정말 개 장에 갇혀서 수동적으로 사태에 이 끌려갈 수 같은 짓거리에서 벗어나는 생각도 했다. 물론 희망버스와 각종 선 길바닥에서 네 번의 거에서 연거푸 드러났던 노동자·민중의 분

노와 저항에도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1,500인 선언, 도심 투쟁문화제,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 거리강연, 100인 릴레이 기고, 희

망견기 등으로 투쟁을 알리고 분노와 힘을 조직해 문제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4. 올 초 회사에서 제시한 안이 있다고 들었다.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용역강패를 투입한 2010년 3월 이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다. 교육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더러운 짓거리들을 일삼자 교육·여성·인권·종교·법률단체와 학생들이 모여 '재능교육 OUT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됐고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회사를 압박한 결과 올 초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단체협약은 절대불가, 해고자 12인 중 11인에 한해 복직을 허용하되 6개월부터 3

년까지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월 50만원 을 지급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이걸 받았어야 했나? 학습지노조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처절하게 싸웠다. 노동기본권도 보장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고 퇴직금·상여금도 내놓으라고 외치면서 목숨 걸고 싸웠다.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가정이 파탄 나고 하루아침에 잘리고 정신이상이 생긴 동지들을 수없이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회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단체협약은 맺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2007년 5월의 단체협약은 불과 그보다 6개월 전에 대법원이 근로자 아닌 학습지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한 직후에 체결한 거다. 장난하나? 우리에게 10여년의 학습지노조 투쟁 역사를, 앞서 싸운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그렇게 헐값에 내

줄 권한은 없다.

해고자복직문제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겨우’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선별복직과 복직유예기간을 당연한 듯 받아들여야 하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유예기간 없는 전원복직!’.

우리는 복직을 위해 3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기간만큼 더 싸워서 3년 되는 날 복직하겠다 라는 각오로 싸울 것이다.



5. 회사가 단체협약 절대불가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바로 학습지교사들이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은 그야말로 자본가들에게는 꿈의 직종이다.

실상 노동자이지만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어떠한 의무도 부담도 지지 않은 채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필요 없어지면 언제라도 계약해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해고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최저임금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또 있다. 올 1월부터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급여가 100% 압류되고 있다. 100%다. 왜냐하면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의 50% 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본가

들이 거품 물고 지랄을 떨던 ‘무노동 무임금’을 넘어 ‘유노동 무임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아무 일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환상적인 특수고용직을 자본가들이 포기하겠는가?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가속도를 붙이려 할 텐데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게 될 경우 그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레미콘과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이유로 그들이 가입되어 있는 건설노조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도 못하겠다는, 그래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무한착취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6.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히 투쟁 1,400일이 넘어간 게 아니구나 싶다. 투쟁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식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단순히 투쟁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진영 전체가 그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렵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리고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당연히 실천이다. 며칠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만났다. 소위 '산 자'였지만 '죽은 자'들과 함께 77일간의 옥쇄투쟁을 했고 지금은 해고자 신분이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동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그 때 우리가 제대로 실천했다

면 19명의 억울한 죽음이 없었을 것이고, 김진숙 동지가 309일을 크레인에서 지새지 않았을 것이고, 송경동, 정진우 동지가 지금 감옥에 붙들려 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그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와 같은 연대를 넘어 구로동맹파업과 같은, 초기 마창노련과 같은 그러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희망버스에 함께 했던 자발적인 참가자들의 열정과 분노를 조금도 폄하하거나 유실시키지 않으면서도 결국 자본가와 그들의 권력에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 3~4년간 너무나 어이없게 깨져나간 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의 운동이 너무 후퇴하지 않았나 싶다.



7. 끝으로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 재능지부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 달라?



지난 1,400여일을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사자보다 더한 열의로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얼마든지 단체협약 쟁취할 수 있고, 유예기간 없이 해고자 전원이 원직복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다. 투쟁사업장 동지들 모두 이러한 각오와 믿음과 의지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투쟁!! **혁명**

희망새연필, 재능자본에 맞선 질긴 노동자들

희망 새연필
재능자본에 맞선 질긴 노동자들

학습지재능지부조합원들의 1400일간의 투쟁의 기록을 작은책에 담았습니다.

가격 : 3,000원

1002-937-010409 우리은행 김진찬
문의 : 재능지부사무국장 오수영 010-2381-3982

재능교육 처벌하라

유명 강연회 성리훈

순간 질박 조돈 향리하

11.06 일기 2011.5.10.26

재능교육out국민운동본부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오세철

이 연재 글을 꿰뚫는 문제의식은 세계혁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의 불충분한 축적뿐만 아니라 혁명지도자들과 혁명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조건의 불충분성에도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 자본주의의 가치법칙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억압의 역사적 구조로서의 계급무의식에도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연재1>은 이를 뒷받침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연재2>는 독일 파시즘의 분석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억압 구조와 그 결과물로서 반동적 파시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연재3>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떻게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혁명인 스탈린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나는 「붉은 파시즘」으로 부르기로 한다. <연재4>는 마오주의를, <연재5>는 제3세계 민중주의를, <연재6>은 김일성주의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연재7>이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반혁명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물질적 필요성으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반혁명으로 전복된 역사를 올바르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1. 볼셰비즘과 계급의식, 그리고 붉은 파시즘

러시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다는 데는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 내에 큰 이견이 없다. 물론 평화회공산주의 내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다. 소련은 무엇이었는가의 객관적 분석에서는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타락한 노동자 국가론이나 관료적 집산주의론보다는 우세하다.¹⁾ 그러나 스탈린주의로의 반혁명이 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의 연속성을 파헤치는 논거는 적다. 이는 뜨거운 감자, 아킬레스 힘줄이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1년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빅토르 세르쥬는 “모든 스탈린주의 세균은 처음부터 볼셰비즘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의 노동계급 기반이 약해지는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급 속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소비에트 정부의 생존을 위해 헌신했고, 그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계속 옹호했다. 그것이 러시아 노동계급 다수의 능동적 지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이룬 수천 명

의 볼셰비키 핵심활동가들이 보여준 맑스주의 시각과 혁명적 단호함이라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했던 것이다.²⁾

「붉은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토 뮐레가 나치를 「갈색 파시즘」이라 칭한 것을 대칭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개념은 라이히도사 용했고 특히 스탈린주의와 동의어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대중의 심리구조 문제가 아니라 혁명 이후 몇 년 사이의 역사적 과정에서 반혁명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였다. 보기를 들면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볼셰비키 당-국가의 폭력,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라팔로 조약), 사적자본과 해외자본에의 러시아 경제 개방, 적색 테러 등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반혁명적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혁명 이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소비에트의 제도적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1917년 11월 10일 신분제 폐지, 12월 11일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1일 8시간 실시, 12월 16일 군대 계급 폐지, 12월 17일 1,886개 전략회사 몰수, 12월 18일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결혼제도 실시, 12월 19일 낙태법 제정, 12월 21일 러시아어 철자 간소화, 12월 29일 이자 지급과 채권 배당 지급 중단, 12월 31일 모자보호 연구소 개소, 1918년 1월 3일 소비에트 연방 러시

1) 마르셀 반 데르 린덴 (황동하 옮김), 「종합:서구 맑스주의와 소련」, 『실천』, 2011년 6월(통권55호)를 보면 1917년부터 2005년까지 소련을 분석한 입장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특히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또는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2) 피터 세지워, 「해설」, 빅토르 세르쥬 (황동하 옮김), 『러시아혁명의 진실』, 책갈피, 2011, 539쪽.

아 공화국 선포,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을 위한 법령 선포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혁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계급은 소비에트 생산의 주체, 권력의 주체였는가? 제국주의에의 포위, 독일 혁명의 실패 같은 외적 조건이나 내전과 같은 내부적 조건 때문이었다는 불가피론이 아닌 노동계급의 소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성찰이 있었는가에 대해 레닌을 포함한 볼셰비키 지도자들 누구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무엘 파버는 레닌과 볼셰비키당 주류 누구도 사회주의 성취전략을 위해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와 그들 각각의 이론 정립에 대해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레닌의 유사 자코뱅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혼란과 경제의 관료화를 피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자발적 주도권에 대한 초기의 강조점을 포기했다는 것이다.³⁾ 그는 또한 레닌과 대다수 볼셰비키가 사회주의의 본질과 그 가능한 내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 고도의 도식적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자가 “그들 자신의 국가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독립 노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⁴⁾ 따라서 노동이 모든 시민의 사회

적 의무라는 초기 개념과는 반대로 강제 노동이 벌어졌다. 이를 볼셰비키 좌파인 오신스키는 생산성 증진에 대해 레닌의 견해에 동조했지만, 레닌이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를 혼동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는 노동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이었다.⁵⁾

그러면 당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당과 노동계급은 한편으로는 혁명에 대한 열정과 대외적 군사투쟁, 사유재산 몰수운동 및 과거 유산자층에 대한 계급적인 배척운동에서는 일치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과 권력 집중, 노동군사화 정책, 강제 노동, 임금차별, 식량 문제, 지역 간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불신과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헝가리 역사학자 자무엘리(Szamuely)는 전시공산주의의 대원칙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국유화, 노동의 의무, 중앙집권적 생산관계, 계급간의 평등 분배의 원칙, 화폐와 시장경제의 소멸 등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문제는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국유화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피상적인 결과, 즉 소유와 분배 면에서의 불평등을 형식적으로 없앴으나 생산에서의 경쟁과 물신숭배의 원리를 고수했다고 보았다.⁶⁾

3) Samuel Farber, *Before Stalinism: The Rise and Fall of Soviet Democracy*, Polity Press, 1990, 72쪽.

4) 앞 글, 75쪽.

5) 앞 글, 76쪽.

6) 이정희, 「볼셰비키 사회주의와 ‘노동자 관리’(Workers' Control) 운동, 1917-1921」, 서울대 박사논문, 1998, 8.

노동조합에 대해 온건하게 동조하거나 중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비율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비율보다 훨씬 컸다. 1917년 36.4%에서 1920년 4월 3차 노동자대회 때 84%로 늘어났다. 노동계급과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볼셰비키의 태도에 영합하는 당 간부들은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할당된 물자의 징발이나 생산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몰두하는 요원들로서 매우 출세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산 개입을 옹호하거나 노조의 선거제를 주장하던 과거의 지하운동가나 투사들처럼 저항적이거나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⁷⁾

더구나 강제노동은 내전에서 불리한 시기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가 확실시되는 순간에 더욱 강화되었다. 볼셰비키의 투쟁 대상이 반혁명 세력이 아니라 노동이탈자나 소극적인 노동대중에게로 옮겨졌다. 노동군사화 정책이 시행된 후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의식은 더욱 퇴조하고 당원수도 격감하였다. 이에 볼셰비키 정부는 불안해져서 인위적으로 백군의 위협을 더욱 과장하거나 혁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사기업의 몰수와 강제적 국유화, 일반 노동자·농민층의 희생, 배급제와 교환경제의 혼용, ‘노동자 통제’의 억압과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의 채택, 곡물의 강제적 징수와 차등 임금제의 시행, 그리고 기계화와 기술자 우대 등 복합적 양상을 띠었다. 이 때문에 말레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들은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유산에 근거한 억압적인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보았다.⁸⁾

혁명 이후 격동적 이행기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계급은 점점 배제되었고 대상화되었으며, 생산과 권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소멸되어 갔다. 노동자 반대파의 실라쁘니고프는 1919년 당 계획의 기초에 따라 ‘노동자 통제’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⁹⁾

“노동자 반대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조직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자들이다. 노동조합내의 인물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혁명의 선봉대로서 아직도 소비에트 국가 기구 속으로 통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또 이들은 아직도 인민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다. . . . 당은 예전에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지도하고 반성하였으나

7) T. F. Remington, “Institution Building in Bolshevik Russia: The case of State Control”, *Slavic Review*, 41, (Spring 1982), 99-101쪽.

8) Malle, S.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War Communism, 1918-21*, Cambridge, 1985, 495-505쪽.

9) A. Kollontai, *The Workers' Opposition in Russia*, New York, 1921, 3-12쪽.

이제는 대중을 불신하고 있으며, 복종과 권위, 차별의식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의식에 젖어있는 뿌피 부르주아 출신의 기술자들을 기용함으로써 경영과 조직 면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맑스주의적 실천이 아니다.”

소비에트 권력의 두 가지 기반은 노동자의 능동적이고 대대적인 참여와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노동자 대중이다. 1917년 10월부터 1918년 4월까지가 소비에트가 부상하는 시기였다면, 19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소비에트 권력이 위기를 맞고 쇠퇴하는 시기였다. 1918년 5월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1918년 공창위원회가 사라졌으며 소비에트 조직의 끊임없는 재생도 자취를 감추었다. 1918년 4월 페트로그라드에 기반한 799개 주요 기업 중 265개가 사라지고 노동자 절반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식량을 구하고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빠져 나갔다.

물론 노동자평의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활력소는 세계혁명이었지만 내전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볼셰비키의 노동 정책이 더욱 숨통을 틀어막았다. 러시아 부르주아지와 영·불·미·일 등 제국주의

열강과 동맹을 맺은 백군은 러시아를 초토화시키면서 6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소비에트를 억압하면서 그 구성원을 학살하였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적군과 책카가 창설되었으나 소비에트 집행위의 토론 없이 결정되었으나 소비에트 집행위의 토론 없이 결정되었다. 적군은 지원제였고 주로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평의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적군과 책카가 소비에트를 통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¹⁰⁾

따라서 1921년 초 크론슈타트 반란은 광범위하게 벌어진 노동자들의 파업만큼 중요하다. 페트로그라드 20마일 서쪽에 있는 크론슈타트는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반은 시민, 반은 군인이었다. 당 고위 지도부의 선전과 달리 지역부대는 공산주의자가 다수였고 크론슈타트 강령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당이 아닌 소비에트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 강령의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¹⁾

1. 현재의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 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와 모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선언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노조와 농민조직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

10) "What are Workers' Councils?(iv)", International Review, ICC, 4thQuarter, 2010,143호, 10-14쪽.

11) Avrich, P., Kronstadt in 1921, New York, 1970, 72-4쪽.

용할 것

7. 지역별로 공산주의적 책자를 설치하는
규정을 취소할 것

9.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식량 배급권
을 줄 것

혁명과 혁명 후 사회 건설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 대상화, 그리고 그들의 소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로 하자. 이는 적색 테러와 관련된 문제이다. 백색 테러는 최악시하면서 적색 테러는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부르주아지나 반혁명 세력에 한정된 것인가, 노동자계급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 문제 역시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 분리될 수 있는가? 왜 스탈린주의만 문제되는가? 소련 붕괴 이후 비공개 문서가 열리면 서 수많은 문건들이 연구 자료가 되고 그것에 근거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은 『공산주의 흑서: 범죄, 테러, 억압』 (1999년)이다.¹²⁾

서론에서 이 책은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에 서의 사망 인원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소련

(2천만), 중국(6천5백만), 베트남(100만), 북한(200만), 동유럽(110만), 라틴아메리카(150만), 아프리카(170만), 아프가니스탄(150만) 등이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① 1918-1922년: 재판 없이 수만 명의 포로와 죄수의 처형, ② 1922년의 기근: 5백만 명의 죽음, ③ 1920년: 코사크족의 몰살과 추방, ④ 1918-1930년: 수용소에서 9만 명 살해, ⑤ 1937-38년: 대숙청에서 69만 명 처형, ⑥ 1930-32년: 쿨락 2백만 명 추방, ⑦ 1932-33년: 인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된 기근으로 우크라이나인 400만 명과 기타 2백만 명의 죽음 ⑧ 1939-41년과 1944-45년: 수만 명의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발트인, 몰도비아인, 베사라비아인의 추방, ⑨ 1941년: 불가 지역 독일인 추방, ⑩ 1943년: 타타르인의 대대적 추방, ⑪ 1944년: 체첸인의 대대적 추방, ⑫ 1944년: 잉구시(Ingush)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슬람교 수니파의 민족) 대대적 추방 등이다.¹³⁾

소련을 분석한 Werth는 볼셰비키 당과 모든 자발적 사회구조(공장위원회, 노조, 사회주의 정당, 주민조직, 적위대, 소비에트)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으며 몇 주 사이에 이러

12) Stephane Courtois, Nicolas Werth et al., (translated by J. Murphy and M. Kramer)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 Terror, Repression, Harvard Univ. Press, 1999, 858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은 소련, 유럽, 아시아, 제3세계에서의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 테러, 억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3) 윗 책, 9-10쪽

한 자발적 사회조직은 볼셰비키 당에 종속되었거나 억압당했다고 보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소비에트 위에 있는 볼셰비키 당의 권력을 숨기는 용어였으며, “노동자 통제”는 기업과 작업장 위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이 국가통제의 목적으로 옆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몇 주 사이에 볼셰비키는 1917년 동안 노동자로부터 조심스럽게 형성시켜 온 신뢰를 대부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¹⁴⁾

1918년 9월 3일 공식적인 적색 테러 시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에 볼셰비키 지도자들, 특히 레닌과 제르진스키(Dzerzhinsky)는 어떠한 봉기 기도도 막기 위해 “예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 책가와 당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전보를 보냈다. 이러한 조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르주아지에게 부과된 예외적 세금에 대해 만든 리스트에 근거하여 부르주아지 중에서 볼모를 잡는 것이다. . . . 그리고 집단수용소에 모든 볼모와 혐의자를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¹⁵⁾ 그리고 8월 23일 제르진스키의 협력자인 마틴 라트시스는 “내전에는 성문법이 없다 . . . 내전에서는 적에 대해 법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투쟁이다.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죽기 싫으면 죽여라”라고 『이즈베스티야』(Izvestiya)

지에 썼다. 노동수용소와 집단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919년 5월 1만 6천명에서 1921년 9월 7만 명까지 늘었다.

스탈린 체제가 들어선 뒤 강제 집단화 과정에서 2백만 이상의 농민이 추방되었고, 6백만이 굶어죽었다. 스탈린 시대 테러의 결정적 단계는 농민에 대한 폭력이었다. 1929년 12월 27일 스탈린은 “모든 쿨락 경향의 박멸과 계급으로서의 쿨락의 제거”였다. 1936년-38년 사이의 대테러 시기는 이른바 ‘예조프 치하’(The Reign of Elzhov) 시기로서 억압이 당 서기국으로부터, 거리에서 체포된 단순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소련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수십 년간 대테러의 비극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서방은 세 번의 공개재판(1936년 8월, 1937년 1월, 1938년 3월)만 알고 있었다. 레닌의 동지들이었던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니콜라이 크레틴스키, 리코프, 피야타코프, 라데크, 부하린이 트로츠키와 함께 소련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테러 중심부를 조직한 것을 인정하고 숙청됨으로써 스탈린 주의 테미도르 관료층 대 혁명적 약속에 충실했던 레닌주의 고참 사이의 권력투쟁이 막을 내린다. 지금 접근 가능한 모든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이 예조프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4) 윌 책, 제1부 인민에 맞선 국가: 소련에서의 폭력, 억압 그리고 테러(N. Werth), 52쪽

15) 윌 책, 73쪽

이 책은 소련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사이클을 네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1917년부터 1922년 말까지로 레닌이 권력 장악과 함께 폭력과 억압을 내전의 필요한 부분으로 본 시기이다. 자발적 사회폭력이 공식적 구조를 가지면서 농민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1918년 봄에 일어났는데 이는 적군과 백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보다 더욱 수십 년의 테러의 모델이 되었다고 본다. 크론슈타트 반란은 앞으로 올 사건의 명백한 신호였고 이 첫 번째 사이클은 백군의 패배나 NEP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농민 저항을 진압한 1922년 기근으로 끝났다. 1923년부터 1927년까지의 짧은 유지기를 지나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농민에 대한 스탈린주의의 집단적 공격이 일어나고 폭력은 일상화된다. 집산화는 농민에 대한 군사적, 봉건적 착취이며 1933년 대기근에서는 스탈린 체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다.

대테러(1936-38년)시기인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스탈린 시대 사형선고의 85% 이상이 이루어졌고 1941년 이후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소비에트화를 통한 “위대한 애국전쟁”의 시기로 조선인 추방 같은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난다.¹⁶⁾

맑스가 ‘역사에서의 폭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어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체계적 계획보다는 일반적 전제로서 보았다. 물론 맑스의 저작에도 모호함이 있다. 그러나 맑스는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은 파리 코뮌과 유혈억압의 결과에 대한 재앙적 경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에 반대하는 제1차 인터내셔널의 논쟁 동안 맑스가 우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 내의 테러적 폭력에 대한 논쟁은 거의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1872년 맑스는 혁명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적 형태를 띠 것이라고 바랐다. 이러한 견해는 1895년 출간된 맑스의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2권에 엥겔스가 쓴 「서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유럽의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러시아의 혁명적 토지 운동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동안 이러한 혁명 운동의 한 부분이 폭력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 운동에서 폭력의 가장 급진적인 주창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에서 혁명가의 모델로 삼은 세르게이 네카에프였다. 1887년 3월 1일 알렉산더 3세 암살에 실패했지만 체포된 사람 가운데 레닌의 형 일리치

16) 윗 책, 262-264쪽

올리아노프가 있었다. 체제에 대한 레닌의 증오는 당 서기국의 인지 없이 1918년 로마노프 일가의 살해를 결정하고 조직하게 하는 데 깊은 뿌리가 되었다. 이는 1789년부터 1871년까지의 서구의 혁명적 전통이 제공한 초기의 폭력의 정당화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볼셰비즘의 특성을 만든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의 대중봉기라는 민주주의적 전략과 위로부터의 엘리트 테러와의 결합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¹⁷⁾

레닌과 볼셰비키가 이러한 결합으로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킨 구체적 배경을 쿠르토이는 『공산주의 흑서』의 결론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 있다.¹⁸⁾

볼셰비키 지도부 누구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레닌, 트로츠키, 지노비예프는 망명 중이었고 스탈린, 카메네프는 시베리아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관료제 내에서 일하거나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었고 전쟁을 보거나 전사자들 본 적도 없다.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들이 안 것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말의 전쟁이었다. 그들의 것은 죽음, 학살, 인간 재앙에 대한 순수한 추상적 전망이었다.

또한 20세기 초 러시아 경제는 엄청난 성장의 시기였고, 사회는 점차 자율적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민중과 생산수단에 부과된 예외적인 제약은 정치체제에 제약을 주어 상황을 해쳐 나갈 에너지와 전망을 소진시켰다. 1917년 2월 혁명은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고, 고전적 경로, 즉 노동자, 농민의 사회혁명과 함께하는 제헌의회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길이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에서의 폭력 전통이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지만 볼셰비키의 극단적 폭력 경향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 폭력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2월 혁명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분명했고, 이는 당과 레닌에 의해 부과되었다.

1914년 전의 맑스주의가 1917년 이후 레닌주의로 변화되었다. 레닌은 맑스주의 원칙인 계급투쟁, 역사에서 폭력의 필요성,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군사 규율의 지하조직과 연관된 직업혁명가로 구성된 혁명당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이 목적을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위대한 사회주의 조직과 다른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켰다.

17) 윗 책, 731쪽.

18) 윗 책, 734-745쪽.

제11차 당 대회에서 쉐리아프니코프는 직접 레닌에게 말한다. “일리치는 어제 맑스주의 의미에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러시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급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도록 하는 동지에게 축하하게 해주게.”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상징 조작은 유럽과 제3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쿠바에서 공통적이다.

1937-38년의 대숙청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테러는 19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당 기구까지 목표로 하는 제거 대상을 발견한다. 히틀러는 억압에서 개인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고, 히틀러 같은 부하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반대로 스탈린은 스스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37-38년 사이 14개월 동안 180만 명이 42회에 걸친 거대하고 세세한 준비된 작전으로 체포되었다. 그 중에서 69만 명이 살해되었다. “계급투쟁” 대신 “계급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사실은 특정 반대자가 적 계급이 아니라 전체 사회였다. 스탈린 아래에서 처형자는 희생자가 되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처형한 부하린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개처럼 총살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개처럼 총

살되었다.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흑서』의 저자들은 프랑스의 연구자들이고, 특히 소련 연구의 경우 스탈린 시대보다는 러시아 혁명 후 5년 정도의 시기(내전) 동안의 폭력과 테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스탈린주의보다는 그 원형으로서의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의 본질과 맑스주의에 대비되는 러시아 혁명운동의 특성에 착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의 반응과 평가는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좌익공산주의 계열의 『국제주의자 전망』이 내놓은 간략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로 한다.¹⁹⁾

여기서는 이 책의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볼셰비키를 위한 모델로서 프랑스 혁명의 역할이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자코뱅(당통, 로베스피에르)이 1917년 볼셰비키의 모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면서, 당시 프랑스에서 자코뱅을 노동계급의 모델로 보는 것을 거부한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소렐을 언급하고 있다. 소렐은 자코뱅과 테러가 구체제의 가장 순수한 전통이라고 보았고, 폭력의 본질, 그것의 계급적 기원, 그리고 국가와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볼셰비키 당내의 프락치키(Praktiki)의 역

19) Mac Intosh, “The Bolsheviks, The Civil War, and Red Fascism”,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2003 (Spring/Summer), no.41, 18-20쪽.

할로서 그들에게는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권력만이 문제였고, 책카의 지도부 같은 인자는 맑스주의 실천가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내전기간 동안 혁명가, 노동자, 농민에 대한 폭력이 레닌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4월 테제에 보인 레닌의 입장과는 다르며 레닌의 지지와 주도권 없이 프락치키가 책카에서 권력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 세 번째는 당 지도자로서의 레닌의 역할인데, 여기서 볼셰비키가 규정한 적 개념에 혁명가, 굶는 농민, 파업하는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굶는 농민은 쿨락이 되고, 파업하는 노동자는 기생충이 되며, 무정부주의자와 사회혁명당 좌파는 벌레가 된다면, 이미 10월 혁명의 자궁 속에 붉은 파시즘이 자라고 있지 않았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련 연구자인 Werth가 붉은 파시즘에로의 길은 스탈린 집권 10년 전인가, 크론슈타트 반란 전인가, NEP 전인가, 라팔로 조약 전인가를 따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2. 대중, 지도자, 그리고 붉은 파시즘

〈연재1〉에서 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결합이 혁명 이론의 정립과 실천에 열쇠임을 밝힌바 있다. 왜 정신분석이 사회주의에서만 미래를 가지는가?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적 부르주아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생활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복지”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지성과 성생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는 말한다.²⁰⁾

“소련에서 정신분석은 발전할 수 없었다. . . . 이것은 아마도 소련 지도자들이 성혁명과 문화혁명이 처해있는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 . 내가 들은 것처럼 스탈린이 경제 계획과는 반대로 소련에서 인간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묘사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료들과 발견들에 따르면 성적 재구조화가 없는 탓이라고 해야 한다”

정신분석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녔던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레닌과 클라라 체트킨 사이의 대담을 인용하는데 이 대담에서 레닌은 노동자 모임과 청년집단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20)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성정치』, 중원문화, 2011, “변증법적 유물론과 정신분석”, 99쪽.

라이히는 레닌의 관점에 동의하는데 이는 ‘성 논의’가 일반적으로 성 활동에 대한 대체물, 가장 흔한 지적 자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이 클라라 제트킨과 나는 같은 대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지적을 따온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즉각 이해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금욕주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삶의 즐거움, 삶의 힘, 만족스러운 애정 생활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공산주의가 성생활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 확실히 이것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라이히는 1917년 이후 소련의 대중심리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²¹⁾

“1917년 러시아의 사회적 격변으로부터 출발한 문화가 타도된 차르 치하의 권위주의적 사회질서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가 인간의 성격구조에 재생산될 것인가? 새로운 ‘소련인’은 자유롭고 권위주의적이 아니며 합리적이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구조 속에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된 자유는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지도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국가가 소멸되는 것만큼 그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맑스가 가정하

였듯이 그 조직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의 기본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련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자유로운 자기 관리적 공동체에 있어서 자유로운 세대의 조직’은 창조될 수 없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발생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과도기 상태에서 발전과 성숙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1930년과 1934년 사이에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국가 소멸’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시사해주는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고, 길잡이가 될 만한 징후는 무엇이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는 소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연스러운 일-조직, 일-민주주의를 위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전제조건에 관한 지식인데,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생물학적 전제조건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라이히는 말한다. 사회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적 사기업과 임금노동자 대중만이 존재했던 시기(1840년부터 1920년까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정치지향적인 중간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이 없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동적으로 함께 뭉친 대중

21) 발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246쪽.

들도 없었다는 것이다.²²⁾

레닌은 거짓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인민들이 생산, 생산물의 분배, 사회적 규제, 인구 증가, 교육, 성 등을 활기차게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의회가 아닌 소비에트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에트가 혁명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적 국가행정조직으로 전락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달려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이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제거하는 기능에 충실한지의 여부, 둘째, 소비에트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협력자이며 집행기관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감독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스스로를 간주하는지의 여부, 셋째, 소비에트가 대중들의 대표자인 이상, 대중들 각 개개인이 소비에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운용 중인 국가기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수해야 할 자신의 과업에 들어맞게 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레닌은 ‘관료주의의 폐지’가 왜 유

토피아적 열망이 아닌지에 관해, 그리고 어떻게 관료주의가 없는 또한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즉각적 과업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파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관리’, ‘자치’, ‘비권위주의적 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은 단지 경멸에 가득한 너그러운 웃음만을 자아낼 뿐이며, 무정부주의자의 꿈이며 유토피아적 공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의 폐지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은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든다. 1937년 이후의 소비에트 문헌들을 보면 다른 모든 노력보다 우선성을 갖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 권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문헌들 속에는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가 궁극적으로 자치행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질서’는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혹은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생성된다.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휘어잡으려는 그리고 그들에게 혁명적 사상을 부여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단지 시끄럽고

22) 윗 책, 264쪽.

해로운 야단법석만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의 붉은 파시즘은 스탈린 시대의 애국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자.

“우리 모두의 사랑,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웅심, 우리의 생활 -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두 가져가십시오. 오 위대한 스탈린이여,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위대한 조국의 지도자시여, 당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공기 속에서, 땅 밑에서, 물위에서, 성층권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 . .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줄 첫 단어는 바로 ‘스탈린’이 될 것입니다.”(레닌그라드 레드타임즈, 1935, 2월 4일 기사)

“소비에트 애국심 - 끝없는 사랑의 불타오르는 감정이며, 조국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이며, 조국의 운명과 조국 방위에 대한 심원한 책임감인 - 은 우리 인민의 깊은 심원으로부터 솟아올라 나온다. . . .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탄생하고 키워진 소비에트 러시아여! (프라우다, 1935, 3월 19일자)

이에 대해 라이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정치의 정서적 전염병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 . . ‘소비에트 애국심’은 혁명적 열정이 사라져 버릴 것을 예

상하여 나중에 「보오탄(Wotan) 애국심」(고대 독일 신화의 최고신,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을 말함. 파시스트 애국심)에 대한 투쟁을 위해 필요한 준비였으리라.”²³⁾

국가의 소멸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인간에게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은 다 음과 같은 국가주의를 표현한 시에 잘 나타나 있다.²⁴⁾

콜호즈와 수많은 강철 같은
선동자를 위하여 국가가 필요하다
태평양에서 민스트까지, 아프리카에서 크리
마아까지
비옥한 땅이 트랙터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가 너희들을 부른다.
앞으로! 앞으로 모두 함께!
대오를 갖추어 나가자!

스타하노프주의로의 퇴보는 소련에서 인간의 성격구조 형성에 비참한 영향을 미쳤다.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무지막지한 사람들만이 경쟁적인 성과급제도 아래에서 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주 뒤떨어지거나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격차는 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질투와 야심을, 강한 노동자들에게는 무례함과 오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함께 소속되어 일한다는 집단 의식은 생겨날 수 없고 정서적 전염병의 특징인 고발과 반발이 유행하게 된다. 소비에트 정신에

23) 윗 책, 286쪽.

24) 윗 책, 323쪽.

대한 파시스트적인 칭찬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공장이 형편없는 기계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²⁵⁾

훈련 받은 소수의 “에토스”는 항상 대다수 국민을 무능하게 만든다. 신화와 에토스는 영웅적일 수 있지만 항상 위협하고 비민주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방법이다.

라이히는 그 당시 소련의 객관적 상황과 전쟁 이데올로기의 결합이 파괴적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짓고 있다.²⁶⁾

첫째, 1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한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고취되어있다면 전쟁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간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삶의 이상으로 추켜세워진 사심 없는 헌신은 숙청, 처형, 모든 종류의 강압적 조치와 같은 독재적 과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중심리를 점진적으로 형성했다. 둘째, 호전적인 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려운 현안과업을 해결하는 와중에 자신의 과업을 잊어버린다면, 목적이 충족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쓸모없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들은 소외되고, 분리되고,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서 비합리적인 애국주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역명**

25) 윗 책 326쪽.

26) 윗 책 321-2쪽.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 회원들이 말한다



꿈을 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지윤 (충남지역 회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출범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실현된 것이다. 사노위에서의 강령을 둘러싼 투쟁으로부터 태동한 의견그룹이 몇 개월에 걸친 노력에 의해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나에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나 역시 1500만 노동자의 한

명이기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이후 당 건설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강령이 있다. 앞으로 이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 강령이 보다 풍부하고 대중적인 요구들로 채워져야 하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꿈을 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무척 행복해질 것 같다. 먼 훗날 당이 건설되고 당원으로서 첫 활동을 하는 날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에게 칭찬할 것 같다.

이 꿈을 앞으로 1500만 노동자 계급과 지금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에서 활동하는 다른 회원들과 나누고 현실로 만들고 싶다.

같이 이 꿈을 꾸고 만들어 나갈 동지들이 점점 많았으면 한다. 혁명정당 건설 투쟁 만세!

공산주의자는 노동자계급과 구별된
다른 당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혁추의 임무는 무엇인가?

김남명 (울산지역 회원)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은 노동자계급의 이론과 실천의 중심이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가올 공산주의 사회가 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세계사에 현실로 나타난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한’ 혁명적 정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자계급과 구별된 다른 당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혁추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활동이 언명에 그치지 않고 혁명을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의 대중화와 동시에 엄밀한 자기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껏 한국 대중운동의 정치적 미발전과 적들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 개량주의와 결합되어 불구화된 형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맑스가 언명한 노동자계급의 지적 발전을 가져왔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반대행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99%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이 그렇듯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구' 사노련 동지들이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낡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한 것은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개량주의 노동자정당의 등장이 10년을 넘어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계급투표 현상을 부르주아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 앞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은 충분하다. 노혁추는 노동자계급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개량주의와의 투쟁, 혁명적 이론의 정립에 앞장서는 것을 자기 임무로 갖는다.

현실운동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불구 상태와 더불어 실천적 기회주의는 끊임없이 자라났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내부로는 씨클주의, 대기주의와의 투쟁이 필요하다. 한편 노동자계급 운동에서는 조합주의와의 투쟁에서 실천적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후자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지도를 넘어서 현실적 지도력은 일정한 물리력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금속노조 현자지부 선거에서 '전국회의'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당선 이후 실천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조합주의와의 투쟁은 노조 선거전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노혁추는 현실운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모든 실천적 기회주의와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노혁추는 혁명적 이론의 정립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실천을 통해 혁명정당 건설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혁명정당의 현실적 경로의 문제는 우리의 실천활동의 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다. 정세적으로 주객관적인 조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론의 절충과 무원칙한 규율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노혁추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내적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동지들! 건투를 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푸념이 아닌 각오를 해 봅니다

정현철 (서울지역 회원)

1995년 4월 어느 날, 대학 새내기는 그 전날 선배, 동기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느라 집에도 안(뜻)가고 학생회실(일명 과방)에서 주그려 자다가 쾅한 얼굴로 일어나서는 수업에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누군가 밥 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회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알림을 하나 보게 됩니다. 『수색동 공부방 교사모집』

초췌한 그 학생은 문득,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뭔가 보람 있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에 덜컥 그 알림을 붙인 선배를 찾아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수색동은 철거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를 따라간 그 학생이 본 건, 부서진 건물잔해와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옥들과 골목길 중간에 타이어를 쌓아올려 만든 바리케이드와 동네 중간에 우뚝서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학생은 뭔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걸 느꼈으나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옛 기억이었는데, 학생이 6살이던 해 다섯 식구가 한겨울에 단칸방에서 쫓기듯 나와 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 갔던 기억과 그때 살던 동네가 기억났고, 그 동네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몇몇 동기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더는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학생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그 동네에 뻥질나게 가서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동네 분들이 주는 밥 먹고 술 먹고 더욱 더 집에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어느 날, 학생은 어느새 무사히 남들 10학기씩 학교 다닐 때 데모 할거 다 하면서(?) 단과대 학생회장도 해보고, 총학생회 사무국장도 해보고 8학기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학점에 맞게 아주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고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는 나머지 문득, '노동운동'이라는 걸 하는 선배에

게 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싶다.’는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곧 비정규직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작은 노조에서 상근활동을 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노조위원장과 함께 간 첫 집회에서 상근자는 위원장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야! 네가 아직도 학생인 줄 알아? 팔뚝질 그렇게 괴상망측하게 대학생 티내면서 할래?”

상근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상근자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팔뚝질을 매우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투쟁은 패배를 거듭하고 대가리들은 야합을 주저하지 않고 그런 더러운 꼴을 보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들 때 저 두 가지 기억을 앨범처럼 꺼내서 찌질하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2011년 탄생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죽비처럼 저를 깨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번쩍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만화책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로 마음을 대신해볼까 합니다.

A. 조직이 깨지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갈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젠 모르겠어요. 정말 이길수 있는 건지……. 끝이 있긴 있는건지.

B.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네. 그래서 온도계를 넣어보면 물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언제쯤 끓을지 알 수가 있지. 하지만 사람의 온도는 쟈 수가 없어. 지금 몇 도인지, 얼마나 더 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물을 때다가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원래 안 끓는 거야 하며 포기를 하지. 하지만 사람도 100도씨가 되면 분명히 끓어.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네.

A. 그렇다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남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수십 년을 버텨내셨습니까?

B. 나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나. 다만 그럴 때마다 지금이 99도다……. 그렇게 믿어야지. 99도에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허허허. **혁명**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맞아 동지들이 보내온 메시지



개량이나 혁명이냐의 갈림길에서 혁명을 선택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정치세력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머리와 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발로 뛰는 조직, 모든 노동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신뢰를 획득하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힘으로 기어이 혁명정당을 건설해서 저 자본주의 체제를 박살내고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는 세상을 열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노동자들의 곁에서 견결한 투쟁들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계 충남지부 서천지회 김원규〉

“혁명!...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겠지요...항상 맑은 정신과 열정이 살아 있는 통 큰 자유로움으로 민중들 안에 공기와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투쟁!”

〈노동기수 박준〉

《혁명》이 노동자의 눈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노위 탈퇴자 모임을 넘어 노혁추를 건설한 동지들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열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비록 함께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에 있지만 동지들이 건설하고 싶은 사회주의 정당, 동지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처음에는 사노위 탈퇴자 모임의 구성원 명단을 보면서 동지들이 현실운동에 어떻게 활동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노동운동은 정세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조직력과 현실적 세력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숫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혁추는 조직의 구성원은 적지만 《혁명》을 통해 정세적 분석과 시기적 전술방향을 필요한 시기마다 대응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서 운동적 책임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의 전술방침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강령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동지들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 투쟁에 대한 중재안을 비판하고, '정리하고 철회' 요구의 기초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유인물은 지금 시기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선전이자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지들이 이러한 초기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선전의 한계를 넘어 실제적인 전술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력이 확보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동지들의 기관지이자 선전지인 《혁명》이 노동자의 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동지들의 건투를 빌며,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년을 넘었습니다. 투쟁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비정규직지회 총회에서 저는 재능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투쟁하기 전엔 잘 몰랐지만,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재능자본에 맞서 1천400일 넘게 투쟁해 오신 여성 동지들의 고통과 눈물을 이젠 조금 헤아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염원이 술한 동지들의 희생과 눈물을 자아냈지만 아직도 넘어설 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처럼 현대차 자본이나 재능자본이나 이 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눈물을 기반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요구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바르게 해결되는 세상,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하고 동지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천명도〉

사회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동지들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고 십년이 지나는 동안 노동운동은 20세기의 '운동의 위기' 그것의 흥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숨 쉬던 대공장 활동은 호흡기를 뚝지 오래다. 요란하던 자칭 노동자정당의 출범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생적 한계를 확인 시키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통합, 유연한 연대"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개량주의 정당 출범 이후 우리는 그들의 어설픈 목표설정, 투쟁대상, 조직화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주의는 철저히 현장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향해 모진 탄압을 뚫고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고, 이를 아직 자각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사회주의 주체들이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이고, 전투적이고, 의식적으로 싸워야 한다.

현장과 함께 끊임없이 달려가는 동지들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천적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결코 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엄길정〉

노동자혁명당 출범과 기관지 〈혁명〉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글귀가 현 자본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해져오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소식은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자본주의 위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격렬한 것이어서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는 노동자계급 주도의 혁명적 정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사회의 현실은 전 세계적인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조직, 실천하고 지도할 대중조직이나 정치조직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부합한 정치적 요구들을 쟁점화 시키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쟁을 조직, 실천하기 보다는 보수정당과의 정치적 야합조차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현장에서 노동자 계급과 동고동락을 함께 할 노동자혁명당의 건설과 기관지 〈혁명〉의 발간은 기뻐 끝에는 단비와도 같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소중한 계급투쟁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조직과 기관지가 올곧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자동차노조 판매 대전충남지회 이용두〉

노동자혁명당 출범! 노동자 혁명정당 건설!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

그간의 투쟁과 노고에 동지적 신뢰를 가득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하나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반mb 연대에 갇혀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장해제 시키고, 자본에 투항하는... 이런 것 말고 독자적인 노동자 혁명정당으로서 국가,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 혁명정당이기를 바랍니다.

조선이라는 썩은 나라를 동학혁명으로 새롭게 고쳤더라면 지금 어떤 세상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또 러시아 혁명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세계적인 혁명들을 생각해봅니다. 정리하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에서 노동자혁명당 동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케이티세라믹지회 임홍순〉

현 시기 강령논쟁의 핵심은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정치적 이행기인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전망을 자신의 강령에 정식화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어떠한 회피, 모호함, 동요, 우유부단함은 필연적으로 기회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제출한 강령초안은 혁명적 사회주의그룹 내부에서 제출한 강령초안 중 가장 발전적이다. 연구노트 수준을 넘어서 강령의 구조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의 이행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전문에 정식화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주의 혁명당의 일부로서 자신을 선언함으로써 노동자국제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소련사회 성격 문제와 권력장악을 위한 이행요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차이는 더욱 생산적인 논쟁과 실천을 강제할 것이고 당적인 협력을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은 한국의 자본가계급과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을 “진보”라고 사기 치는 개량주의자들에 대한 규탄과 선전포고가 되어야 한다.

이 규탄과 선전포고는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전면적인 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강령을 통한 선전 선동 조직활동의 통일에 기초해야 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협력을 통해 운동의 안정성과 정규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제 공장에, 희망버스, 99%에 운동의 내부에서 사회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이 갖는 의의이고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면 투쟁방침이라고 믿는다. 공장과 사회에서 노혁추 동지들의 활동은 사회주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곳에서의 생활 투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도 모든 투쟁의 현장에서 노혁추 동지들을 만날 것이고 차이 속에서 협력을 생산하는 힘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조성웅〉

2011년 10월 29일에 진행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제 경험이 짧은 터라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건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하는 것이 제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일행이 있어서 출범식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도착했고, 그래서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범식 전에 진행한 총회부터 함께 했습니다.

총회-출범식-뒷풀이 일정을 동지들과 함께 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 많은 토론을 했겠구나’였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제는 그 열정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힘 있게 녹여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억압과 착취를 끊어내는 길에 앞장서는, 모든 노동자 계급 -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걷는 든든한 동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범을 축하합니다.

〈서울 임성지〉

노동의 현장엔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 투사들이 자본의 도구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이라 불렀던 영국에선 지금 무려 200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으로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자본주의 지주인 독일마저 자본주의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네 해고자들은 선거판에 의존해 복직을 구걸하고 민주노총 민노당을 비롯한 개량주의 세력들은 오로지 제도정치판 진출에 눈이 멀어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가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한미FTA를 찬성했던 과거 행적을 미안하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고 통합에 들떠 반기는 기회주의 세력들 가관입니다. 노동자 계급을 팔아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 분자들의 뻔뻔스러운 준동에 맞서 곳곳하게 대중적, 공개적으로 혁명의 깃발을 일으켜 세우자 하는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동지들의 투쟁을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지금 사회보험노조는 파업 중입니다. 집행부가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으려 경계선을 긋고 안전빵 투쟁을 하고 있지만 민주노조 재건투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진짜 파업투쟁을 만들어 노동의 현장을 자본가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혁명을 향한 봉기에 노동자군단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을 위해 투쟁합니다.

〈노동자평의회를 지향하는 사회보험노동자 김운용〉

반노동악법의 역사를 만든 정당들과 계급협조로 왜곡 후퇴되는 진보정당 운동, 노동자서민을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허상 속에서 투쟁은 점차 무뎌지고 계급과 투쟁이 출세와 당선으로 바뀐 진보정치,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인간답게 살려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을 계급투쟁으로 묶어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혁명당이 노동자 계급을 대처할 새로운 대안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울산 효성 해고노동자 최만식〉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과 《혁명》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준비 3호의 발간에 이어 드디어 창간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노동자혁명당(추) 부스에서 창간준비호를 구입하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단지 출판물로서

의 가치를 얘기한 것인지 노동자 혁명이론의 가치를 이해한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노동자혁명당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속에서 노동자인중의 분노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반자본주의' 그 이상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인중의 부름에 응해 더 지체 없이 당건설 투쟁에 돌입한 동지에게 적극적인 환영을 표합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준비된 선진노동자들이 당이라는 조직체에 잘 담아낼 때에 이름 그대로 '노동자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무가 따르는 길을 누구보다 먼저 걷는 동지들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든든 합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앞으로도 여전히 이론과 실천을 두루 갖춘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최고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 어느 광고의 문구인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됨보다도 주변 동지들의 삶을 돌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곳곳이 자기 할 일을 하며, 항상 순수하게 노동자계급의 혁명에 복무하고 있는 동지입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회원이지요.

사실 저는 노동자혁명당에 그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터라 노동자혁명당의 출범이 지금 시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사회주의를 꿈꾸는 동지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동지의 길을 지지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 활동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치환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전히 그 동지의 순수한 사회주의 열망을 믿고 지켜보려 합니다.

서로가 자기 운동이 최고라며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싸우고 있지만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운동에서 부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진중하게 헌신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복무하는 노동자혁명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남 강은실〉

계급의 자기확신과 혁명의 전진을 위해 출범한 노동자혁명당 건설을 축하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기 확신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통합이네, 혁신이네, 민주대연합 입네를 부르짖으며 사분오열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때에 노동자혁명당의 출범은 그 자체로 분명한 자기확신으로 혁명을 완수해 가는 큰 걸음입니다.

빼 빠지게 일해도 자본가들과 정권에게 빼앗기고 있는 노동의 대가를 되찾고 권력을 되찾아 노동자해방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단결합시다.

통치형태, 경제체제, 사회구조, 문화적 가치를 오롯이 노동자들의 손으로 가져오기 위한 세계 혁명 완수를 위해 모두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공무원해고자 박철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오는 혁명
뚜렷하게 비추는 햇불로 우뚝 서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여!

〈경기도 교사 000〉

자본주의 쇠퇴기에 자본의 도구가 된 노동조합과 선거 및 의회주의의 신비화를 극복하고, 노동자평의회들의 국제적인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자혁명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아닌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것'이나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권력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망상을 떨쳐버리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스스로 장악하는 것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계급투쟁의 혁명적 목적을 제시하는 노동자혁명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하대 고윤식〉

자본주의 쇠퇴의 시대!

자본가마저 목적 없는 살벌한 경쟁의 사투에 삶을 저당 잡힌 어처구니없는 못된 세상! 이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를 더는 참을 수 없어 솟구쳐 오르는 저항의 물결들 북아프리카, 중동, 이스라엘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터져 나온 외침이 머잖아 언젠가는 더욱 거세게 해일이 되고 활화산 되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때 계급 없는 세상, 신인류, 일찍이 인류가 경험 하지 못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열어가! 그날의 거름이고자 나선 우리들!

동지! 자랑스럽습니다. 함께합시다!!

〈제주 이승찬〉

요즘 들어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몇몇 동지들과 토론을 해보아도 결과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전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현실에서 옳게 사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머뭇거리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에서 대중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동지들과 접하다보니 인간관계에 매여 입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가장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 동지들을 찾다가 노동자혁명당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고, 몇 번의 토론 속에서 잃었던 방향 감각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실여건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저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지들이 바로 최일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혁명운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할까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동지들의 혁명이론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15년 노동운동의 직관으로 봤을 때 동지들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투쟁하시는 조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지들의 주장을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더 이상 애매 모호한 단어들 속에서 허우적거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부터 헤엄쳐 나와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연대하겠습니다.

〈영동지역 노동운동가〉

2011년, 올 한해 세계는 변화와 저항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민주주의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선 '99%'를 외치는 민중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세계 각지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희망버스를 통해 그동안 단절되어왔던 노동계와 대중 간의 연대로 막강한 사측권력과 맞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100년을 넘게 지탱해오던 자본주의 세계의 한계와 모순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된 가운데, 그동안 사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갇은 날조와 왜곡, 편집을 일삼던 수구언론의 영향력도 점차 그 힘을 잃어가는 추세다. 비록 수구세력이 종편 날치기라는 천박한 모략을 통해 또다시 이 사회를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려 하지만,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는 이를 충분히 극복 가능하게 해준다. 다양한 비판과 분석으로 그날그날의 사회적 화두를 실시간 수천만 개의 메시지로 공유하며, 기성 언론 매체의 그늘 속에 가려졌던 우리사회의 사각지대가 일반 대중의 관심과 판단을 통해 사회이슈의 중심에 설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기엔 이르다. 이명박 정권 이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생각해본다면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치솟는 등록금으로 희망의 날개를 찢어어만 하는 대학생들, 온갖 착취 속에서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권력 비판으로 온갖 괴롭힘과 매도를 당해야만 하는 지식인들, 정재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저질러온 만행까지 더한다면 너무 많아 열거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것은 저항세력 내부의 문제다. 바로 이 사회의 대중, 그리고 그들과 나름의 소통을 한다하는 위정자들의 모순적 태도가 그러하다.

얼마 전 국회에선 여당의원들의 FTA 날치기 처리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내년의 총·대선을 겨냥한 이해타산식 정리와 야합에만 빠져있을 뿐이다. 반이명박을 필두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한미 FTA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도 이를 야기했던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는 무비판적이며, 노동자 복지를 외치면서도 정작 하청기업과 노동자를 억압하며 생산되는 대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에는 호의적인 모순된 태도가 그러하다. 이런 현실은 현 시국을 더 악화시키고 강화시킬 뿐이다. 또한 극복해야 할 현실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왜곡되고, 보수적인 체제에서 나약한 민중은 노예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오류를 범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불합리하기만한 기존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찾거나, 성군의 등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대중의 수동적 태도는 사회 전반의 보수화로 이어지고, 더 나은 세계로의 건설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대다수는 노동자로서 고용되어 살아간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노동력을 행사하고 계약한 만큼의 임금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다.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통해 성찰과 능동적 대응이 현실의 모든 부조리를 헤쳐 나갈 유일한 무기라고 외쳤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를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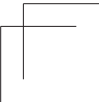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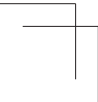
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적극적인 연대만이 우리 사회의 무수한 구멍들을 조금이나마 메워 나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다.

언젠가 알 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어느 명사께서 필자에게 해주신 충고가 있다. 투쟁은 유세부리지 말고 자위하지 않으며 유쾌하고 진취적으로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보려는 모든 이들이라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 야합과 미사여구로 그저 일신의 안위와 자신이 몸담은 정당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을 스폰서로 업고서 정의와 합리를 외쳐대는 법조계, 정계 입문이나 꿈꾸는 조합의 두목 아인들까지. 이사회회의 약자인 대중과 노동자가 믿을만한 권력과 조직은 애초에 없다. 구조를 분석하고 능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것만이 이 땅에 희망을 뿌리내릴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얼마 전 출범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참담했던 용산, 재능교육, 현대차, 쌍용차, 한진..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권유하지는 않겠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봤으면 한다. 자본주의의 허영과 화려한 어둠에 눈이 멀어가는 사회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묵묵히 투쟁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의 출범에 박수와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본다.

〈서울에서 정창환〉





혁명

창간준비
1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고민택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양효식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 이형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김명석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호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자료] 사노련 항소심 모두진술문 - 오세철

혁명

창간준비
2호

목차

창간준비 2호를 내며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임천용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김명석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 이용대 / 김병호

더블딕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 양재훈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 좌클릭? - 남궁원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 김병호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 김태훈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혁명

창간준비
3호

목차

- 창간준비 3호를 내며
- 희망버스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석
-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양효식
-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고민택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천용
- 광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 김병효
- 유성 조합원 인터뷰 -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 이성호
-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이형로
-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 번역 / 양재훈
- [연재 2]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 오세철
-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양효식
-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4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